朝鮮日報 夕刊 十九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波軍,리國에進軍하면 獨逸은메멜奪還說

나치스黨代辯者言明

【伯林十八日發同盟】 波蘭政府는 리투아니아政府가 最後通牒을 拒否하는境遇 軍隊를리투아니아의 首都카우나스府로 進軍시키어 어데까지던지 要求를 貫徹할方針이라하는바 十八日 AP通信社 伯林支局이 나치스黨代辯者의 言明이라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萬一 波蘭政府가 리투아니아로 進軍을開始하면 獨逸國防軍은 이와呼應하야 一擧리투아니아領 메멜地方으로進軍하야 메멜 의 奪還을圖하기로 決定하얏다고한다

宣戰布告에備하야 波,司令長官任命

【왈소十八日發同盟】 波蘭政府는 着着 開戰準備를 整備하고 발서 리투아니아國境에는 軍隊의集結을 完了하야 宣戰布告에 備하고 이미 司令長官까지 任命하엿다한다 但 司令長官의氏名은 發表되지안헛다 또 波蘭銀行會社에는 리투아니아政府가 이미 波蘭의最後通牒을容認한것이라는 情報가 傳하야 波蘭空軍은 終日北方우그르노市 方面에 移動한模樣으로 왈소市는 이미 戰鬪氣分이 橫溢하다

리투아니아國境에 波國軍續續集結

【왈소十八日發同盟】 波蘭國軍은 十八日早朝부터 續續 리투아니아 國境附近에 集結을開始하얏다 그러고 波蘭國軍總監스미그리츠元帥는 右軍隊를 스스로指揮키爲하야 十八日午前七時四十五分 왈소府로부터 國境方面의 빌나市에到着하얏다 빌나市는 리투아니아 波蘭國境을 隔하기 僅三十二키로의 距離에잇서빌나市의 駐屯軍六萬은 리투아니아進軍에 充分한 兵力이라고 보인다

蘇波國境에도 兩國軍이集結

【카우나스十八日發同盟】 波蘭政府는 國境紛爭問題에 對하야 十七日 리투아니아 政府에對하야 最後的通牒을 提出하얏는바 波蘭政府는 어데까지던지 要求의 貫徹을圖키爲하야 十八日午後波蘭國軍에 對하야 리투아니아,波蘭國境方面에 出動을 命하얏고 軍隊는 目下國境地帶에 續續集結中이다

【헬신키 十八日發同盟】 하바스通信社 헬신키支局의 報道에 依하면 蘇聯政府는 波蘭 리투니아紛爭 最惡의 境遇에備하야 波蘭國境에 赤軍軍隊를 集結하얏다하며 또 이에 對하야 波蘭軍隊도目下 蘇聯國境方面에 集結을 開始하얏다고傳한다

最後通牒內容 波蘭政府에서發表

【왈소十八日發同盟】 波蘭政府는 十七日 午後九時리투니아政府에 對하야 國境紛爭事件에 關한最後通牒을 發하얏는바 十八日午後에 至하야 右通牒의 內容을 如左히 公表하얏다 「波蘭政府는 三月十四日附리투니아 政府의提案을 受諾키不能하다 此際리투니아政府는無條件으로 正常且直接友好關係를 復活하는것만이 戰爭의 危險을 回避하는唯一의手段임을 諒解할것이다 最後通牒은 에스토니아 駐箚 리투니아公使에 通達하고 四十八 時間을期限으로한다 리투니아政府는 來三月三十一日 곳波蘭駐在外交代表를 任命할것이며 又外交代表任命에 關한 證書는 느저도 三月二十九日까지에交換할것이다 波蘭政府는 本通牒에關하야 리투니아側이 어떠한討議를 加하야 反對要求를 提出함을 不許한다 何等의 回答에도 接치못하는境遇는 通牒內容을 拒否한것이라고 認하고 波蘭의 合法的權益을 防衛키爲하야 獨自의 行動을 取할것이다」

波最後通牒에對해 리,緊急議會召集

『리』國和平解決希望코友好國과協議

【카우나스十九日發同盟】 리투니아政府는 波蘭政府의 最後通牒에 對하야 態度를 決定키爲하야 十九日緊急特別議會를 召集하얏다 그런데 右最後通牒은 十九日午後九時를 期限으로하는것이다

【카우나스十八日發同盟】 리투니아政府는 波蘭政府의 最後通牒에 接하고 極度로 憂慮하야 目下 最後通牒의內容을 愼重히檢討하는同時에 紛爭의 平和的解決에對하야 友好各國政府와 協議를 繼續하고잇다

一方聯盟에도提訴?

【쥬네브十八日發同盟】 聯盟리투니아代表 스칠파氏는 十八日午前 아브놀聯盟事務總長을 訪問하고 國境紛爭事件에關한 波蘭政府의 最後通牒을 詳細히報告하고 諒解를 求하얏다 但스칠파氏는 아직 本國政府로부터 事件을提訴하라는 訓令을 受한것은 아니다 따라 聯盟側에서도 最後通牒의 提出에對하야서는 그리 重大視치안는 模樣이다

波리兩國에 佛蘇平和要請

【巴里十八日發同盟】 波蘭、리투니아間의 國境紛爭은 波蘭軍隊의 國境集結에依하야 重大化할 危機를孕胎하게되엇다 十八日AP通信巴里支局이 探知한바에依하면 佛蘭西政府는 蘇聯政府와 協議한結果 佛蘇兩國은同時에리波兩國政府에 對하야紛爭의 平和的解決을 要望하는旨의 覺書를 提議하기로 決定하얏다한다

蘇,리國에諒解要望

【巴里十八日發同盟】 蘇聯政府는 리波國境紛爭에 關하야 佛國政府와합게 리、波兩國에對하야紛爭의 平和的解決을 要望할것의 申請을行하기로決定하엿다하는데 파리소와紙 리가特派員의 報道에依하면 카우나스駐箚蘇聯公使 크라비뵈제르氏는 十八日早朝리투니아外務省에 로즈라이테이스外相을 訪問하고 蘇聯政府는 國境紛爭에依하야 惹起된 리투니아의 窮狀에는 衷心으로 同情하나 리투니아政府에對하야 積極的援助는할수업다고言明코 리투니아政府의 諒解를求한模樣이다

滕縣占領코入城 沂州는孤立狀態

南昌에又復大空爆擊

【兗州十八日發同盟】 去十六日夕刻 滕縣城東南角을 占領後 繼續하야 戰果의 擴張에努力하고잇든바 城內의殘敵도 完全히掃蕩되엇스므로 ○○部隊는 十八日午前八時 堂堂滕縣城에 入城하야 城內到處에 日章旗가 飜揚되고 着着秩序의 回復을보고잇다

【濟南十八日發同盟】 山東省東部中間地區의 要塞沂州東北方白塔을 지나 沂州의 前面에 肉迫한我山東掃蕩의 高野部隊는 沂州北方地區에 進出하얏든 張自忠及四川軍을 十四日來의 激戰에 擊破하고 敵에 徹底的打擊을與하엿다 敵은我軍에 備하야 沂州를臨海線徐州防禦의右翼最大據點으로하고 이에防備를嚴固히하야 前面에 흐르는沂河 방河의 兩河附近에는 嚴密히 塹壕를 構築하고 또 沂州城壁의 外側에는 거미줄가티 鐵條網을둘러파고 張自忠軍三十八師 八十師가增援하여와 必死의防禦를 구지하고잇스나 高野部隊는 再三의 猛擊에崩潰하기始作하고 또 津浦線의要衝臨城이 占領되엇스므로 沂州는全然 孤立狀態에陷하엿다

【上海十八日發同盟】 十七日深夜敢行된 我海軍荒鷲部隊○○機의 南昌空襲은 事變以來의 大壯擧라할것으로 官入、須田兩少佐가 引率한 大空軍部隊는 大空을 덮는것가티 大擧江西省南昌上空에 十八日午前 零時四十五分到着하야 곳 敵新飛行場에 爆擊을 敢行하야 地上에잇는 中型五機를 大破하고 爆擊하야 燃燒시키고 一機를 爆破하고 警備工場二棟을 徹底的으로 爆破하얏다 南昌新飛行場은 일즉이 敵空軍의 集結場所로 指目되어 그날도 相當한數의 敵機가 待機하고 잇섯슬터인데 我大空襲으로 그大部分은 逃亡하야 獲物은 豫想外로적엇다 我 空襲部隊는 그를 [illegible]

中等學校長會議 總督府에서開催

改正된 敎育令의 施行上萬全을 期하기 爲하야 總督府에서는 十九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全朝鮮公立中等學校長及 師範學校長會議를開催하얏다 出席人員은 全部七十七名으로 鹽原學務局長의 總裁下에 南總督의 一場訓示가잇슨後 局長으로부터 敎育改正의 根本精神과 骨子를 詳細히 說明한다음 議案討議를 進行하얏는데 南總督의 訓示要旨는 左와如하다

總督訓示

今回特히 各位의會同을 開催한것은 曩者公布된 改正朝鮮敎育令의 施行을 目睫에 압두고 此에附帶한 各學校規程을 公布하야 準備가 다되어잇슴에際하야 特히 直接敎育의事에 從事하는 各位의 盡瘁에 至深하는바 懇切한바잇서 玆에 其趣旨의 徹底를圖하야 敎育當事者의 覺悟를 새로히하려는바이다 大抵 半島統治의 目標는 一視同仁의 聖旨를 奉體하야 同胞로하야금 모다 昭昭한 皇化에 浴케하고 眞實로 皇國臣民인 本質에 徹底케하며 또 조곰도 差異업시 內鮮一體 同心一家의 境地를 具現시킴에잇다 蓋內敎育의大本도亦是實로此根幹에基하야 千古不磨의 大詔인 敎育에關한勅語의 御旨趣를 奉體하야 忠良有爲한 皇國臣民을 鍊成하야써 國力의 增進과 社會의進展에 貢獻함에잇는것으로 其敎育의本旨에잇서서는 元來 內地에잇서서의 敎育과 毫末의 差異도업다 그러나 敎育의 實際는 時勢와 民度와에 適合하지안흐면 잘 其效果를 擧키困難함으로 併合以來屢次 實情에 卽하야 改正을 施行하야온것이나 特히 今回의 改正은 諭告로써 示한바와 如히 內外의 情勢가 重大함과 國內의 實情에 鑑하야 國民育成의方途를 强化하기를 企圖하야 學制의 一大改革을 斷行하게된것으로 大益그 效果의 適實如何는 오로지 敎育當事者의 雙肩에 달리잇다 생각컨대 各位가 管掌하는中等敎育은 充分히 各位가 知悉하는바와가티 初等敎育의 基礎에 據하야 高等의程度에잇서서 一層 國民道德을 涵養하고 生活에 必須한 知能을 得케하며 强健한身心의 鍊成을期함을 目的으로하고 元來完成敎育을 施함에잇서 其目的이야말로 社會의 中軸이되어 잘 皇運扶翼의 途에邁進할 國家須要의 材를 育成함을 期할것이오 그리고 今日의 情勢는 帝國國勢의 發展 肇國以來의 隆昌을 示하고 그러고 잇는同時에 그一過程의 試練으로 緊迫重要한 世局에 遭遇하고 잇는터로 方今 光輝잇는 國體의 精華下에 國民擧皆 時艱의 克服에 努力하고 天業의 恢弘에 寄與하야 皇道의 宣揚을 期할때이다 이를 爲하야서는 國民育成의 重責을 진敎育當事者는 學校敎育의 全野를 擧하야 日進의 世運에 處할有爲한皇國臣民의 養成을 眼目으로하고 敎育內容의 刷新改善을 圖치안흐면안될것 以로 今回의 制度改正에 際하야 發布한改正各學校規程도 此根本趣旨에 則하야 時運에應한 敎學의要諦로 國體明徵、內鮮一體、忍苦鍛鍊의 三大方針을 擧하고 [illegible] 規定의 內容에 精緻한檢討를 施하얏스므로 各位는 이를 深諒하야 잘 그精神을體得하야 國民의 養成上 萬遺憾업기를期하기바란다 改正은 正히半島의 敎育으로하야금 其本來의 規格에 據케하얏다고할것이나 各位의 責務는 今益益重大를 加하엿다 以로 平素의 用意와 施策의 適實에 한층 努力하고 時運의 趨勢를 明察하고 各位는 스스로 敎育報國의 熱烈한 赤誠에 불타서 時局에 處할 覺悟를 새로하야 部下職員을 引率하고 風俗敎導에 努力하야써 生徒로하야금 國體에對한 觀念을 明徵케하고 身心共히 皇國臣民의 本分에 徹底함을 期하고 [illegible] 細心의留意를 加하야 內鮮相和하야 가티協戮報國의 赤誠을 나타낼 國家의 期待에 副케하도록 格別한 努力을 바라마지 안는바이다

英伊兩國間에 二新協定成立

【倫敦十八日發同盟】 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와의間에 羅馬에서 政治的會談을 進行하는一方 일즉부터 伊領東阿를 包含한 兩國通商關係의 改善에 關한 交涉을 行하고잇든바 十八日에至하야 두가지의 新協定이 成立되어 外務省에서 兩國의 署名을 行하얏다 新協定은

一、一九三六年十一月六日의 英伊通商協定에代할 新通商協定
一、同年締結된 英伊生產協定의 修正에 關한協定

의두가지인바 新通商協定의 結果 伊太利는 英國으로부터 石炭 其他의 輸入을 增加하고 [illegible]

【倫敦十八日發同盟】 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와의間에 國交調整交涉을 進行하고잇는바 交涉은 順調로 進捗하야 十八日 兩國政府間에 新通商協定이 成立되엇다한다 英國으로부터 石炭輸入增加와 카사布의 輸入을 約하얏다고 解釋된다

波의最後通牒을 英首相確認

【倫敦十八日發同盟】 체임벌린首相은 十八日午後下院에서 波蘭、리투니아國境紛爭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言明하얏다 「波蘭政府는 리투니아政府에 對하야 三十六時間의 期限付로 最後通牒을 提出하야 今回의 國境紛爭과 同樣의 事件이 再發할 것을 防止하기爲하야 不可缺이라고생각되는 諸條件을 提示하얏다」

時事解說 獨國會廢止說

獨逸議會는 와이말憲法에依하면 一院制인데 議會는 法律案、豫算案 其他法案을 議決하야 行政、立法에 干涉할수잇는 權大한 權限을가젓섯고 大統領이 任命한 內閣은 議會의 信任이必要하다 따라議會는 不信任案을 提出하야 國務大臣을 解職시키고 또 三分之二以上의決議로 大統領을 解職시킬수잇다 [illegible]

◇ 一九三三年一月 나치스黨이 政權을 잡자 三月二十三日에 授權法을 通過시켜 히틀러內閣에 立法權을 賦與하게 되어 事實上 와이말憲法을 廢棄하게되엇다

◇ 現議會는 一九三三年一月三十日 나치스가 政權을 獲得한 以來 [illegible]

바르셀로나空襲 死傷千四百名

人民戰線政府에서發表

【바르셀로나十八日發同盟】 프랑코軍飛行機는 十七日兩次에亘하야 人民戰線派의 首都바르셀로나市를空襲하야 多大한損害를與하고 十八日도 繼續하야 四回空襲을敢行하야 死者八十餘名을 내엇다 人民戰線政府의 發表에依하면 十七日의 空襲에依한 死者는 實로 四百六十名 負傷者九百名에 達하얏다고한다

中歐問題에對해 英政府安全閣議

【倫敦十八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十九日乃至二十一日 首相官邸에 緊急閣議를開催하고 中歐政局과 西班牙問題의 新展開에 對應할 政府의 外交政策 及 再軍備計劃完遂策에對하야 最後的 決定을 할터이다 英國政府는 佛蘭西政府와의 緊密한連絡을 保持하는同時에 各自治領에도 協力을 要請하야 今後는 英國本國이 第三國의 攻擊을 받는境遇에 英國本國을 支持함에 不吝하나 英國本國이 中歐政局에 容喙하면 이를支持하지안켓다는 意向이라고한다 結局 체코에 對하야서는 無條件安全保障의 確約을 與하는일은 업스리라고 보인다

南總督濟州島를 來四月十日頃巡回

昨秋江原道東海岸一帶를 巡視한後 南總督은 來年度 志願兵制度、敎育令改正 其他 劃期的新事業計畫에 關하야 [illegible]中이든 南總督은 來四月十日頃 往復一週間豫定으로 濟州島初回巡視의 길에오를豫定인데 隨員으로는 近藤秘書官、西岡地方課長、鹽海軍御用掛、油井技師、戶之內屬等이다

增稅共同修正案 衆議院委員會서可決

【東京電話同盟】 十八日의 衆議院增稅委員會는 午後六時十分開會 討論採決의結果 民政共同修正案을可決 또政民共同修正案以外의 政府原案及 附帶決議를 全會一致可決하고 同七時二十三分閉會하엿다 如斯히하야 支那事變特別稅法案 外十二件 臨時增稅案部分的 稅制改革은 十九日本會議에 上程되여 委員長으로부터 報告하기로되엿다

八面鋒

◇ 波蘭의 對리투니아 最後通牒으로 리國서는 緊急議會開會、佛蘇서는 調停의 提議。

◇ 그러나 리國의 回答이 滿足치 못할진대 리國首都로進軍을 하라고 二十萬軍을 波리國境에 集結。

◇ 弱肉强食時代라、波蘭이 大戰까지 四分五裂되엇든 몸으로서 오늘날에는 弱한 리투니아를 征服하라는 野心。

◇ 波蘭이 리國을 進入하면 獨逸은 메멜을 占領할 覺悟。

◇ 事態 이리되는날엔 歐洲의 武力衝突은 時間問題。

◇ 英內閣危機說、蘇聯의 國際會議提唱說 모다 這間消息을 窺知。

◇ 半世紀 歷史가진 崇專、崇中、崇義 三校 今日로서 最後의 幕을 닫다。

◇ 平壤敎育界를 爲하야、朝鮮敎育界를 爲하야 一大悲劇。

本社參觀

▲明倫學院生徒五十名 金台俊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李恒九男(李王職次官)東京邸參觀次로二十二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渡東
▲大竹十郞氏(總督府內務局長)二十日午後七時四十五分京城驛發新京에
▲西岡芳次郎氏(總督府地方課長)二十日京城驛發新京에
▲李勳求氏(本社主筆) 海州、新義州出張中十九日朝歸任

厨房의마스콧트 材料를될신 살리는 最新調味料「旭味」

資本金二百萬円 日本醬業肥料株式會社 食料品部

旭 アサヒ 味 アヂ
純結晶・調味料

鮮內一手發賣元 醬業肥料販賣株式會社 京城·釜山·平壤·群山·淸津

旭味는美味한高價品입니다 사실時에는이마-코에 注意해주십시요

和信萬年筆 粗品附大賣出

和信 萬年筆·잉크

和信万年筆 壹本의買上에 和信잉크壹瓶進呈
進呈期間 自三月十五日 至四月十五日
發賣所 全鮮各地 和信連鎖店

洋服界의合理化 品質보다責任保證付

十九圓五十錢부터 三十圓까지 別誂注文合服春廣三揃
十八圓부터 二十七圓까지 合オーバ・コート 別誂注文
特約店大募集 申込次第規約書送呈
◇見本送呈 創業明治二十八年
大阪市谷町一丁目三七番地 羅紗問屋 正司憲商店 洋服通信販賣部

(龍卷票) 鑛物及小倉地 勞働服一般
セーラー服・學生服 乘馬ズボン・ジャンバー 其他スレン・各種洋服 製造卸
(同業商店에限하야 裂地相場表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十番地 合資會社 若原重商店

づ拔けた丹頂の整髮だもの— 頭はいつも日本晴れ!

파리-製보다優秀한 國産最高級品
손쉽고 해산코 가정! 經濟的인
丹頂チック 純植物性 專賣特許
丹頂ヘヤートリン 發賣元 金鶴香水株式會社

入學과敎育은勿論 就職斡旋差別撤廢

改正敎育令學校規程運用善處를示達

今日中等學校長會議內容

교학쇄신(敎學刷新)의 제일보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야 오는 사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됨에 따라 총독부에서는 이에 대한 운용의 만전을 기하고자 전에없는 중등학교장회의를 삼월이십일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개최하얏다 이회의의 내용인즉 전번학무과장회의를 더상세히 해설하는것으로 실제당면한지 모를것을 세밀적으로 협의결정하야 신교육령운용에 주의하도 유감이 없기를 도모하는것인데 특히주목되는것은 종래 은근한비밀리에 내선인교육의 차별이있섯든것을 총독부에서 지적하야 그 실례를들어 한후 금후이따위의 는 단연 일소하는동시에 종래 취해오든 차별입학에 내지인본위즉 내지인우선주의(優先主義)를 단연폐기하고 입학 교육 취직 등모든것을 내선인 공평하는것은 물론이오 인구비률기타실정상을보아 경우에 의하야는 조선인본위에 가까운 방침을쓴는것도 무방하다는것을 총독부당국으로부터 설명한후 각교장의 의견을드럿는데 결국총독부방침에 만장일치로찬성하야 순조로 진행되엿다

…로 말미암아 불화되는 사고가 점점증가하는 경향이어서 방종자로부터 항의가만타하야 이로부터는 일층주의하여 철저하야 이런사고를 절멸하도록하라고 전조선각학교에 통달하엿다한다

日本海湖水化案中心 劃期的大會議開催

關東軍主催裏日本、朝鮮、滿洲側에서參加

交通의革命에關하야協議

만주국의 탄생과 북조선의 라진(羅津) 청진(淸津) 웅기(雄基) 등삼대무역항의 등장으로 조선의동해인 일본해의 호수화(日本海湖水化)의문제는 벌서제창된지 오랫슬뿐아니라 만주와북조선을 련락하는 경도선(京圖線) 도가선(圖佳線)등철도의완정이며 전기북조선삼항의 개축, 그중에서도 라진항의 건설으로서 문제는 이미그일부가 실제화하야 내지의 돈하(敦賀)기타 일본연안의 각항구와의 련락은 상당히 긴밀화하여젓스나, 그간라진을 중심으로 그발전이 뜻갓지못하바는 잇섯다

그러나 이제 대륙정책은 새로운 출발을보지안흐면안될 신정세에 림하야 일본해의 호수화항잔은 하루밧비 완성발전을 기도하지안흘수업서 그간관동군(關東軍)을 중심으로 다각적연구를해오든중 대체의안이 성립되여 오는이십이일 신경일만군인회관에서 관동군주최로 『동북만주대리일본(裏日本)교통회신에 관한 협의회』를 열게되엿, 동경에서는 척무(拓務)당국, 기획청(企劃廳)등을 비롯하여 척무(拓務) 철도체신성당국에서도 출석하고 또만주측으로서는 만주국당국, 만철(滿鐵)당국등이출석하고 조선으로서도아래와가티 출석케되는데 문제가 조선의라진항과 청진, 웅기항을 중심으로 내지의 돈하항과 련락선까지두고 만주, 조선, 내지의 각철도망을활용하려는 대규모의 계획인만큼 조선으로서는 가장관게가깁다 이사업의 계획완성으로 북조선은 실로상상이상의 대발전을볼것으로 관측되고잇다 이가티하야 일만선을 일체로한 교통관게의 종합적회의는 그규모가크기로 처음보는것이다 또동회의에 출석할 총독부측 인원은다음과갓다

▲內務局長 大竹十郞▲同地方課長 西岡芳次郞 ▲財務局理財課長 山地靖元▲遞信局長 山田忠治(又는同海事課長 岡田修一)▲鐵道局工務課長 淸水幸次▲咸北道知事 兒島高信▲外務新京派遣事務官 高橋敏

…히 전달하여야할 신문지를 지나치곳까지 실고가며 또는얼토당토안는다른정거장에 내루는것으…

近郊散策地各驛 臨時乘降取扱

철도국에서는 례에따라안산(安山)망월사(望月寺)의소요산(逍遙山)부근의 유람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야 이십일부터 삼월말일까지 어떠한 동안 일요일과 축제일(祝祭日)에 한하야 다음의 각렬차를 일분동안 정거시켜서 여객의 승강을취급하기로 되엿다한다

◆安養驛入口假乘降場에는 第四二四〇 四五列車
◆望月寺入口假乘降場에는 第五九一 五〇三 五〇四 五一四列車
◆逍遙山入口假乘降場에는 第五〇三 五一四列車

(사진은 우로부터 고공졸업식、리화녀고、중앙보육)

羅津을中心으로 連絡鐵道複線化

羅津都市計畫도擴大

별항동북만주와 일본해연안내지와의 해륙교통망의 혁신계획내용의 일단을듯건댄, 우선, 라진항과 돈하(敦賀)항사이에는 팔천돈(噸)급의 련락선(連絡船)을 두어하로 수왕할수잇는 정기항로를 두기로하고 이와련락할 철도망은 신경과 라진간을 복선으로하고 또 돈하와동경(東京)간도 복선으로하야 신경동경간은 종래오십삼시간에 통하는것을 십칠시간을단축시키어 삼십육시간에통하게할수잇도록 하려는것이고 이에따라 조선내의 철도도 경성라진간을 지금보다 칠시속력을더하게하며 북선의세항구의설비를 완정하며 또세항구간의철도련락을 극히긴밀히 하려는것이다 이가티함에는 라진항의역할이 가장중대하여지므로 라진항의도시계획도 규모와시설에 시 대수정을 가하게되고 「여」항으로서 종래 삼백만톤의 물화를소화하도록 계획중이든것을 일천만톤 물화를소화토록 설비하려는것이다 전반대륙의교통을 평시는 산업상발전에 리용케하되 일단유사시에는 군사상연락에 유감업시 하려는것이다

貨物誤扱을注意

철도국에서는 요지음에 일반 소하물(小荷物)의증가에 따라급…

今日의卒業式

高工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제십륙회졸업식은십구일오전 아홉시에 그학교에서 거행하엿다 졸업생은륙십명인데 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 열다섯명이며 우등생은 김종규(金鍾奎) 황기룡(黃起龍) 두명이다

梨花女高

리화녀고의 제이십회졸업식은 십구일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열엿는데 금년의졸업생은 전부 삼십사명으로 그중 상급지망자가 륙명 취직이여섯명 가사가스물여섯명이며 우등생은다음과갓다

金恩愛 申永愛 崔玉琦 文玉仁 鄭信泳 朴容珠 羅希泰

中央保育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제십회 졸업식은 십구일오전열시부터거행되엿는데 졸업생은 어십삼명인데 우등생은 다음의여섯명이다

◇保姆生=金甲淳 李孝永 崔成女 朴善仁 朴信淳 李花子

歷史的廢校指令

今日崇實二校設立者에交附

【平壤支社電話】숭전(崇專)、숭중(崇中)、숭의(崇義)세학교의최후를고하는 폐교지령은 십구일오후한시 평남도청 지사실에서 상내(上內)지사로부터 설립자라 도내숭전교장 모의리(牟義利)양씨를 초치하고 교부햇는데 석상에서 상내지사로부터 「수년동안 문제되나려오든것이 오늘에이르러 해결을보게되니 매우 다행한일이다」라는의미의 소회를말하자 라도래씨와 모의리씨도 번가라가면서 「여러해동안 편변측에 여러가지로 걱정을끼친것은 대단 미안한일이다 그러나 삼십년동안이나 조선의 교육계를위해서 노력해오니만큼 실로 감개무량하다」라는 의미로 인사를베픈후 물러갓는데 이때에 전기 모、라양씨와함께 교우회대표로가는 숭전교우회장 우호익(禹浩翊)씨는 다음과가티 감상을 말한다

「감상? 그저 학교가 죽엇느니만치 나자신도 어째 살어잇는것갓지안타 따라서 그저 울고만십습니다!」

國境으로黃金洪水

百萬圓密輸團捕盡

─流行店舖인重石水鉛買入看板아래서─

現場에서萬餘圓金塊押收

골드·랏슈에 날뛰는 대규모금괴밀수출단이 종로서에 검거되엿다 부내종로서에서는 관내에 대규모의 금괴밀수단이 잠복하고잇는것을 탐지하고 맹렬한 활동을한결과 드디여 십팔일오후한시 백주에 인사정(仁寺町)백구십오번지 중석수연매입소(重石水鉛買入所)천금상회(天金商會)를 습격하고그곳에모혀안저밀의중이든좌기여섯명을 일망타진하는동시에 일만원가치의 금괴와 현금수천원을압수하고 엄중한취조를 시작하엿는데 이들은 공모하고작년구월부터 전기장소에다 간판을 거러노코 전조선각지방 큰광산으로 도라다니며 산금을사드려다가 가만히제련하야 금괴로만들어 만주국으로 밀수출하야거리를 보아온것으로 밀수총액은 벌써 판명된것만으로도백만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의것으로 취조의진행에따라 전모가 들어나는날에는 십일년가을검거된 석복(石福)광업의 오천만원에달하는 밀수사건에 다음가는 대규모의것으로될것이며 더욱 이사건은 작년구월십오일부터 실시된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에 위반되는 첫큰사건이 될것으로 취조의결과는 주목되고잇다

▲淸津府相生町二五〇 無職 徐仲煥(三〇)
▲咸南長津郡郡內面邑下里二〇 無職 鄭乙福(三二)
▲同所三五 無職 朴秋龍(三九)
▲淸津府日出町一二〇 無職 金鍾三(四〇)
▲府內阿峴町一二六 無職 尹三龍(三三)
▲府內龍頭町一〇六 金銀細工 李相福(三七)

(사진은 밀수단본거)

朝鮮絹織火災와 大工場에警鐘

原因은失火나 防火壁無施設이禍因

職工의今後가念慮

속보=십팔일오후 큰불에맛나 공장의거의전부를회진으로돌려보낸 숭인정(崇仁町)조선견직회사의화인은 소관동대문서에서와경찰부보안과에서 상세히조사한결과 건조장(乾燥場)에 불을너무 때인것이 견사에옴겨붙은 실화로판명되엿는데 상당히큰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방화벽(防火壁)하나 업는 설비불완전이 이공장을 몃시간에 잿가루로만들어 버린중대한원인으로 경찰당국에서는 방화시설의 경비에대하야 수차경고를하엿스나 실현되지안코잇든 회사의 사무실의 멧채의집만을 남기고는 공장을 전부 태여버린 동회사는 방금 조업(操業)을중지하고 잇스며 따라서 일백이십명이나되는 직공의장래가 중대문제로 되여잇는데여기에대하야 동회사사장 민형기(閔衡基)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직공들의 장래에 대하야서는 어제밤 늣도록 간부가모혀서 의논중이 협의를 거듭하엿는데 조업중지하는 동안이라도 되도록 일급을 지불하야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업도록할 결심이외다

市街地計畫受益稅

賦課路線을決定

六條幹線과市街道路線

소화십삼년도부터 새로히부과되는 경성부특별세 시가지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京城府特別稅市街地計畫事業受益者負擔金)의 내용에대한것은 지난일월이십일 그 조례가결정된이후 본지에 기보한바와가거니와 소화십이년도부터 착수한 경성부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시행한도로는 광장의신설파확축(擴築)、로면(路面)의개량 하수도의신설또는개량에잇서서 조례에규정된 일정한수익구역에대하야 사업비의일부를부담부과하는것으로 일년에두번식 오년동안 부과하는것인데 소화십삼년도에는 총액 륙만원의 부과될터이다 그부과지역은 소화십이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한 시가지계획의 간선도로와 시가도로로서 다음의간선도로 부과기일은 오는 유월말일이고 납기일은 유월말일까지이다

◇十二年度受益者負擔地域

一、幹線道路改修
往十里驛=前串橋間
永登浦=堂山町
淸凉里=往十里
東小門=敦岩町
上往十里=敦岩町
南山周廻道路

二、市街道路改修
旭町二丁目=東四軒町
西大門一丁目=竹添町一丁目
昌慶苑=東小門
新橋洞=三角町

京永마라손出發光景

健脚陣의爭覇 培材劉君優勝

二着의金君도新記錄

京永마라손大會經過

스포-츠·씨-즌의 첫봉화를올리는 朝鮮陸上競技協會와 本社共同主催의 第八回京永(十五哩)마라손競走는 豫定대로 十九日午後一時 光化門 本社出發點으로 擧行되엿다 出發에앞서서 參加廿二名選手의 入場式이잇서 同會長의 開會辭가잇섯고 昨年度優勝者李鍾鉉君(培材)으로부터 優勝旗와 優勝盃를返還한다음 뒤이어 賞品授與가 잇섯스며 審判長李正相氏의 注意事項說明이잇슨後 午後一時正刻에 一齊히스타-트를끈엇다 和暢한봄날씨로 마라손에는 알마즌「컨디슌」이엿다 沿道에는 鄕土의名選手를 熱烈히 應援하는 自動車와 自轉車隊로京永間道는 文字그대로 大混雜을 呈하엿다

力走또力走의 熱戰을 展開하드니 昨年의 覇者李鍾鉉君은 鷺梁津附近에서 棄權하고 昨年大會에二着으로入賞한 劉寬興君(培材)이 所要時間 一時間二十九分九秒로力走하야 昨年記錄一時間三十一分四十五秒를 二分三十六秒나 短縮하야 新記錄을 樹立하엿다 그리고 二着에는 京城의金國培君이 入賞되엿는데 이날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往路라임
1 劉寬興(培材)四一分二〇秒
2 吳昌奭(培材)四一分二〇秒
3 朴仁順(平南)四四分〇五秒
4 李秉仁(雄基)四五分
5 姜秉勳(平南)四五分一五秒
6 鄭秦熙(白光)四五分三〇秒
7 金國培(京城)四五分五〇秒
8 許南俊(京城)四六分
9 金華一(開島)四六分一六秒
10 李永祥(崔正)四六分三〇秒

◇往復總라임
1 劉寬興(培材)一時間二九分九秒
2 金國培(京城)一時間三一分〇秒一
(以上大會新記錄)
3 吳昌奭(培材)一時間三三分三四秒六
4 李永祥(崔正)一時間三三分
5 金一華(開島)一時間三五分二六秒
6 李秉仁(雄基)一時間三六分四六秒五
7 李承傑(永登浦)一時間三八分四八秒六
8 李根榮(水原)一時間三八分四六秒二
9 吳濟勳(平南)一時間四〇分三三秒二
10 金春亨(崔正)一時間四六分四四秒二

運動界人事·集會

▲金成玗君(前延專蹴球主將)과金蓮順孃의結婚式은 二十一日午後二時 元山權氏女高講堂에서擧行

杏堂町에强盜!

現金五十餘圓强奪

電燈을꺼버리고短刀로서脅迫

십구일오전두시쯤에 부내행당정(杏堂町)이백오십번지 리춘식(李春植)씨집에 괴한두명이 침입하야 켜고자든 전등을 꺼버리고 단도로 협박하고현금오십여원을 …

道立工業을 一高校舍에

今日總督이認可決裁

금춘부터 개학할 경기도립공업학교(京畿道立工業學校)는 이미경기도로부터 소정의수속을갓추어 정식으로 총독부학무당국에 제출하얏든바 신학기가 림박한관계로 총독부에서는 일사천리적으로 급속히 진행하야 삼월이십일 총독의결재를바더 오는이십이일경에는 정식으로 인가지령이나올모양이다 그리하야 경기도에서는 정식인가지령을 밧는대로 곳생도모집요항을 발표할터인데 교사는 제일고등보통학교구교사(舊校舍)를 림시로사용하게될것을비롯하야 생도모집요항기타만반의 준비가이미정비되어잇스므로 정식인가만나오면곳 개교준비에착수할터이다

晉州高普에서 合格者를發表

【晉州支局特電】진주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문제 루설사건으로 입학시험합격자발표를 연기하엿든바 개시한바대로 십구일오전 아홉시에 합격자 일백여섯명을 발표게시하엿다

完快謝禮

本人이年少時로부터惡性神經衰弱으로 數十年間을悲觀하든中 百藥이無効로衰弱하야 廢人이될것을痛歎히지내든中 京城府鍾路三丁目七番地 米國生物醫學士 韓筴道 內科醫院에서 米國서製造한 무날게 神經强壯劑를 服用한바 耳目新人이再生의特効를 蒙하엿삽기感謝를 不已하야 本紙를通하야 韓筴道先生에게 滿腔의感謝를 드리는同時에 滿天下讀者에게 再生恩惠를널리紹介하나이다

京城府益善町八二 李洪九 白

典當舖울리는 假刑事또出現

전당포울리는 가경관—십팔일오후일시 이십분경 부내 광희정(光熙町)일정목삼십구번지 령목질옥(鈴木質屋)에 자칭 본정서원 죽전(竹田)이라는자가 나타나 근처(近處)울 먹으러왓다가 돈이 좀부족하여서 왓다고 하며 너도풍가량되는 금시계줄을 사십원에 잡혀 가지고 도라갓다 이자가 도라간후 주인이 다시 그시계줄을자세히보니 도금한줄이엇스므로 곳본정서에 보고하야 동서에서는 가짜본정서원을 체포하기에 전력을 다하고잇다 또한 이자가 경관행세를한것은 전당포 업자와 가장 긴밀한관계를가진것은 경관임으로 정신적으로 위압을 주고 사기를 감행한 상당한지능범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 北滿에잇서 東進中이다 高氣壓은 變動업시黃海로부터 朝鮮及本邦方面에퍼지고잇다 그리고 朝鮮의西岸이 흐린外에는 滿洲朝鮮內地와가티 안개가 發散해나리고잇다

豫報 오늘밤은 흐리고明日 개엿다흐렷다한다 京畿全區同

昨日最高 一〇度二
同最低 一度八
今朝最低 一度三
今日正午 五度一

代表的婦人良藥

胎養調經丸

「胎養調經丸」은 數十星霜間 婦人病의靈藥이라고世人의 絶讚을바더오는代表的婦人良藥이올시다

그리하야本劑는數만흔婦人의月經不調、子宮病、冷症、帶下症等을快治하야生男生女、明朗한家庭을이루게한 有効卓絶한婦人良藥이올시다

主治効能 ◇血虛及冷症、月經不調、月經前後及月經時腹痛 ◇赤白帶下、下腹痛子宮病 ◇食頭、眩暈、其他婦人病

藥價 一劑(一個月分) 金五圓

胎養調經丸 滋陽丸 京城鍾路 本舖 和平堂藥房 振替京城一二〇〇九 電話本局二五〇五番

補陰補陽

滋陽丸

「滋養丸」은 오랜歲月을두고數만흔사람의 體質을改造시킨生命의補劑올시다

本劑에依하야새로운氣力、새로운體力、새로운精力、새로운活力의所有者가되시옵소서

主治効能 神經衰弱、不眠症精力減退、精力衰弱、腎虛、勞作食血、疲勞不良、早漏…

藥價 一劑(一個月分) 金五圓

補精腎氣强壯劑

海狗腎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樺太廳官營專品 朝鮮釜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流行歌 KJ1155 金福姬 金安祥 울고십흔마음 / 박타-리 코-드 / 꼿업는放浪— 曺永見

長頸新式 蓄音機 金儲 カタログ呈 石櫻機械製作所

山口屋小動物園 高價買入

會商永吉 설사 색 조 제

科喉咽鼻耳姜 永日姜 醫學博士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七一〇番 入院室完備

齒牙를强하게하고美麗하게하는

라이온치마

이齒磨로서 이賞品이當選된다!!
이機會를일치말고 곳사십시요!!

愛用者優待 全部當選되는 大懸賞

壹等
(1) 美術置時計
(2) 最新式(미제트小型)寫眞機
(3) 高級空氣銃
(4) 크로무側腕時計
(5) 無線受信機(마이오제트)
十二名

貳等 萬年筆과 샤프펜슬셋트 四十名

參等 優美箱子入手巾 一百名

四等 스타—(싸인지에무)鉛筆(打字) 六百名

等外 라이온치마분(試用封) 殘全部 (但應募者 千萬名單位)

懸賞課題 어느家庭을勿論하고朝夕으로반드시使用하는物件中、虫齒豫防에第一有效한것이무엇입니가 左記○票를한곳에適當한文字를記入하시오

ラ○オン齒磨 又는 라○온치마분

應募規定

一、應募用紙 虫齒를豫防하는가장優秀한齒磨、다음五種中에어느것에나 써주십시오
◎라이온煉齒磨(家庭用大形・中形・小形)의外函의後面
◎라이온齒磨粉(特大袋・大袋)의上部를四分之一로分하야 그것을 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潤製 라이온齒磨의帶封을떼여 그것을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라이온齒刷子(一號形・二號形・三號形)外箱後面
◎라이온齒磨水(一號瓶・二號瓶)의外裝紙

一、答案쓰는法 應募用紙에다음의四條件을 알기쉽게쓰시오
一、住所와姓名 二、課題의解答 三、希望하시는一等賞品中한가지 四、廣告를보신新聞紙名

一、送付方法 物件을사신販賣店에付託하시면 送料도들지않고 便利합니다、或은直接郵便으로보내도좋습니다。數가많으면 小包로도關係없으나 送料가不足되면받지않습니다。

一、보내는곳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日華ビル內 라이온齒磨朝鮮駐在所懸賞係

一、締切 七月二十日

一、抽籤方法 八月上旬、所轄署員立會下에 嚴正히抽籤함。一等은正解者만을希望別로抽籤하고、二等以下는一等에서當選되지않은것을合하야順次로抽籤함。

一、當籤發表 九月中旬、主要한新聞紙에一等、二等、三等의當選者만發表하고、其外는賞品發送으로通知함。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라이온치마에配合된特殊成分은무서운虫齒의黴菌을、徹底的으로除去하는、아조强한作用을합니다。그러므로이치마는、健康生活上必需品으로서、不可缺한것입니다。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아—봄이로구나!」 잠을 깬 개고리

땅속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온다

삼월이되고 경칩이 지나면 개고리 소리가 들립니다。 개고리는 겨울동안 잠을 자다가 깨여납니다 봄기운은 땅속에서도 알수 잇는가보아요。 개고리가 천천히 기여나와서 박갓날세가 어떠케 되엿는지 살펴봅니다。

그리하야 마뜻한 기운이 몸에부다치고 이만하면 되엿다는듯이 물속에 들어가서 곳알나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야 곳알을 쏟기시작하는데 알은 사실로 우무모양으로 생긴길다란 줄입니다。

그기리는 삼십메—터나되며 그속에 검은알은두줄로 쪽느러저 부텃는데 낫갯수는 칠천개까지 잇습니다 개고리알이 못이나 개울물속에떠서 단이다가 삼주일가량 지나면 요번에는알이 까저서 올챙이로 변합니다。

올챙이는 제절로 며운기운을 바더서 자는데물우에 떠잇는 풀입사귀가튼데 까마케 모여부텃습니다。 이러케 올챙이는 은봄과 여름동안 자라서 뒷다리가 먼저생기고 그다음에 압다리가 생깁니다。제일 마즈막으로 꼬리가 업서지는데 이 꼬리는 떠러지는것이 아니라 제절로 줄어드러 버립니다。그리하야 올챙이는 완전한 어룬이되고 개고리행세를 합니다。

개고리가 알을 써를때는 지방에따러서 다르나 속히셀른 개고리는불근 개고리 란것입니다。 이것은 남쪽 더운지방에 사는것으로서이월이되면 벌서 알을설습니다。 그다음에는 뚝겁비가 삼월경에 알을설고 사월에는 보통어느 개고리라도 알을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궁굼하시거던 조곰 더워진 뒤에개울에 나가서 개고리알을 가저다가 유리병에 너코방안에 두어보십시요 알은 올챙이로 변하고 올챙이는 개고리로 변하는것이 차례대로 보일것입니다。

사진설명——우에서부터 복되어 기어나온 두께비내외, 그다음은 겨울동안 땅속에서잠자고잇는두께비, 아래는 복되어 어슬렁 어슬렁 기어나온 두께비에요, 그리고 또하나사진은 개고리알입니다。

歷史이야기 (71)

詩人鄭知常

文一平 先生

고려때는시인(詩人)이만헛습니다。이제현 이색 정몽주 가튼분이 모두다 시(詩)를 잘햇는데 그중에도 이제현은 조선에 첫째 가는 시인으로 꼽는이가 엇습니다。

지금 말하려는 정지상(鄭知常)도 고려때 시인중에、유명한 분입니다。

정지상은 이제현보다 일백오십륙년을 압서서 고려 인종(仁宗)때에잇든 시인입니다。그는 고려인종때의 문호(文豪) 김부식과 가튼시대입니다。

정지상과 김부식은 가튼 시대에잇서서 가튼 조정에서 벼슬하면서도 서로틀렷습니다。전하는말에 정지상이가 시(詩)한구를 지엇더니 김부식이가 그것을보고 아름답게 역여 자기에게 양도 하라고 청햇스나 듯지 아니하므로 이로부터 두사람 사이에 틈이생기게 되엿다고합니다

이말을 그대로 미들수업스되 어케든지 정지상과 김부식과 이두사람이 서로 마음이맛지못하고 틀려서 지낸것은 사실입니다。그리다가 정지상은 마침내 김부식의 손에 죽고말엇는데 그가 죽은뒤에 귀신이 되여서도 김부식의 뺨을갈겻다는등 별별 이상야릇한 랑설이 만히 잇습니다。

그러나 정지상이 김부식의손에 원통하게 죽기때문에 그이름이 한층더 노파젓습니다。

정지상은서경(西京)곳 오늘평양사람입니다。그는 이처럼 서경사람으로 서경을 두고 지은시(詩)가 가장용하야 천고절조(千古絶調)라고합니다。

정지상의시(詩)는아주 맑고 곱습니다。그시(詩)를 한번 읇프면 마음이 산뜨시 깨는듯하야 가슴속에잇던 모든생각이 살아지고 맙니다。이와가튼 아름다운 시(詩)를지은 정지상은 그생각과 그행동이 모두 시적(詩的)이엿습니다。

정지상의 일생을 볼때 그는 어데까지던지 그시(詩)와 가튼 생활(生活)을 하엿습니다。

고려때 시인이 만치마는 또는 정지상보다 시(詩)를 더 잘짓는이가 잇다하드래도 그사람의 전생활(全生活)이 시적(詩的)으로된이는 정지상을 먼저꼽아야 하겟습니다。

요런것도다잇나

동물원 명물하마군이 요새 밥을 잘안먹고 풀이죽어보엿습니다。원일인가하고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 아래어금니가 너무길게자라 입천정을 찔르드랍니다 그래서 톱으로 니를잘라내는데 어찌 딱딱한지 삼십분이나 걸렷답니다。

◇

『피스톨』이라구해두 한두적으니까 시겟습에다는것이줄만 아시지요? 그러치만 만만히보앗다가는 큰일나요 화약을재단환을너코쏘며 석자거리에서 너픈두티되는 소나무판자가 빵꾸러지고 개가마저도 죽는다합니다。

◇

미국사람『샤르노―』라는사람은 지난삼십여년동안 꼬마불건만모으러 전세게를 도라다니는사람인데 보십시요 그사람이모은것가운데는 이런것이 잇습니다 백만분지일마력을 정말로내는전동기(電動機)한치되는배、라디오、음식상、이얼마나적습니까

무엇이엇더케 금붕어가될까

한조상미테서 낫서두 자손들은 모두 딴바탕

인제날세가 재법따뜻해젓습니다 [illegible]「금붕어요붕어!」하고 도라단일철이되엿습니다 오늘은여러분동무들에게 금붕어이야기를하겟습니다

금붕어의조상

금붕어의 선조할아버지는 붕어라고합니다 얼는보면 붕어와금붕어는 아주달른것갓기도하지만 몸뚱아리를 자세히비교해보면 아주닮앗는데가만히잇습니다 금붕어중에도『류금』이니『마루꼬』니하는것을 붕어와비겨보면만히달러보이지만『화금』과붕어를비겨보면 서로닮은데가만습니다

그리고금붕어가 강앗에서 까날때는 그빗이나 모양이나 붕어색기와 조금도 틀리지안습니다 꼬리도 삼수일까지는 붕어와갓지만 그다음부터 차차로 세갈내로찌저저보입니다。

금붕어가 빨가케되는것은 알에서까나가지고 두서너달지난후입니다。이러케 서로가튼데가 만키때문에 붕어가 금붕어의 큰집 선조할아버지라고생각하는것도 그리 잘못은업습니다。그러치만 지금에는 전연 붕어와달른금붕어가 만히생겨낫습니다。

금붕어는 엣날부터 구경꺼리로 길러와서 종류도여러가지고 빗갈과 생김생김도 가지가지가잇습니다

금붕어의고향

금붕어를 제일먼저길느기는지나(支那)강서성(江西省)이라고하는데 지금도 지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잇서서 서양각국으로 수출하고 잇습니다。 일본내지에전해오기는 삼백년전이라고합니다。

금붕어의종류

금붕어중에서 제일만히길르는것으로는 화금(和金) 사자머리(獅子頭) 류금(琉金) 출목금(出目金)이네가집니다

이외엣것은 이네가지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변종을시킨것입니다

여러가지종류의 금붕어는몸스뚱이 눈알 등 꼬리 배에달린 지느레미에따라서로 달릅니다

몸스뚱이가긴것은『화금』이요 짤분것은『류금』이요 뚱그란것은『사자머리』입니다 머리가 제일큰것이『사자머리』요 눈알이 특별히 툭튀여나온것이『출목금』입니다 이『출목금』은 미국서는 망원경붕어라고도한답니다

금붕어의꼬리는 두갈래세갈래 네갈래로 찌저진것도잇고 아주치마폭가티된것도잇습니다。그런데 금붕어의 조코 언짠흔것은 이꼬리의 지느레미로서 구별됩니다『화금』이나『사자머리』는 꼬리가짤고『류금』이나『출목금』은 긴편입니다

다음으로 금붕어의빗갈도 여러가지가잇는데 보통으로 보면 붉은것、누른것、힌것、검은것、이네가지가 서로석겨잇는데『화금』이나『류금』은 왼몸이 빨가커나 그러치안흐면 붉고힌문의가잇습니다。『사자머리』는 왼몸이 황금빗이거나 붉고히기도합니다。『출목금』은 왼몸이 검은것、붉은것、붉고힌점이백인것이잇습니다

금붕어의변종

종류가서로달른 금붕어사이에서생기는 금붕어중에는 전연 부모를 닮지안는것과 한편식닮은것과 다음다음손자대에가서 닮는경우가잇습니다

눈이튀여나온『출목금』과 보통으로 눈이생긴『화금』파의사이에서생긴색기붕어는 눈은보통이지만 그다음 색기가나흔색기금붕어는 사분지일쯤 눈이튀여나옵니다 이러케 여러가지를 시험해서 새로히 귀여운금붕어를 맨드러서길르는것도 매우취미가잇습니다。

재미나는 이상한 소문

◆세계제일큰새와 제일적은새—

세계에서제일큰새는 아프리카동지에사는 타조(駝鳥)인데 키는 삼메—틀이나되고 몸무게는 [illegible] 이것과는반대로 세계에서 제일적은새는 벌새(蜂鳥)라고하는놈인데 크기는겨우 [illegible] 엄지손까락밧게는 안된답니다

◆소리안나는 전기기관총—

소리안나는 기관총을 미국서발명햇습니다 보통기관총은 탄환을 화약을써서 쏘기때문에 소리가나지만 이번새로발명한 기관총은전기자석(電氣磁石)의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도록 만드럿기때문에 소리가 안납니다。모양은 보통기관총과갓고 一분동안에 [illegible]발식 쏠수잇습니다。 [illegible] 여간편리한게 아닙니다

◆눈알속에다 거는안경—

「우리눈이 [illegible]—」하고 여러분 [illegible]

◆고래입속에서 결혼식

외국에서는 결혼식을 방안에서하는것은 재미적다해서 비행기우에서 하는 사람이 만흔데 이번에는 이것도 부족타고 [illegible] 고래입속에 드러가서 결혼식을 [illegible]

◆호주머니에드는 꼬마라디오

이것은영국서된 이야깁니다。요즘영국 순사님들은 호주머니에다 꼬마라디오(小型라디오)를너허가지고 단닙니다。이라디오는 기계가 썩 조키때문에 이것만 호주머니에 너허두면 경시청에서 보내는 명령을 언제든지 드를수잇습니다。

◆비누처럼 어리지는맥주

이것도 米國서 벌써부터 만드러냇것인데 요즘 영국서도 만드러냇답니다。어떤것이냐 하면 보통맥주(비―루)는 물로되여잇지만 이맥주는 비누처럼 덩어리로 되여잇답니다。이것을 녀수속에다 너키만하면 대번에 거품이일고 황금색 먹음직한 맥주가됩니다。

이때문에 여행이나 산보를 가려는분에겐 아주 편리하답니다。

◇

사람은 하로에 一키로의 공기를마신답니다。

◇

사람의 뇌수는 평균 一、三키로구람입니다。

「가로노리——」

가로하여도 모로하여도 외로합처도 열다섯이되도록 하나부터아홉까지의 셈수를 가지고서 만드러보게」하고 동무들인데서 말해보시요。엇게는 대답못할사람이 그럴때 여러분이 척 아르켜주시면 좋겟습니다。그러면 이러케하세요。이 그림대로만하면됩니다。한번 시험해보시지요。

2	9	4
7	5	3
6	1	8

참유식하다

척척博士

한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버리는밥이 도합 얼마나되는냐하면 쌀알수로따저서 팔억오천사만알 무게로따지면 일만이천팔백키로구람이나된답니다(물론 평균해서 말입니다)

◇

한시간 이백마일식가는 비행기로 지구를한바퀴돌려면 닷새가량걸니랍니다。이속도대로 해왕성(海王星)까지 날어가려면 실로천오백년이나걸립니다。얼마나 먼지요

사람은 아모것도 먹지안코 열이틀동안 견딜수잇답니다。새는 아호래、개는스므날 거북은 오백년、뱀은 팔백날이고요。

◇

안심하고서

「이애 너자전거 탈줄아느냐」

「난 탈줄 몰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자전거를 좀 직혀다오」

빈대의환갑잔치

빈대 한마리가 제 아버지의 환갑날이되여 잔치를 펑장히채리고 그의동무 이와벼룩을 청하엿습니다

벼룩이나 이는 그의초대를밧고 조아서 새옷들을 입고 부즈런히 빈대집을 차저갓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래 거름거리가 느려서 중간에서 꿈틀거리고만잇는동안에 빠른벼룩은 빈대의집에갓습니다

성미급한 빈대는 벼룩이와 준것이 고마워서 벼룩과 마조안저서 차려노흔 음식과술을먹기시작햇습니다。

이가먼길에 오너라고 새옷이 다젓도록 땀을흘리면서 간신히빈대집에 이른때에는 벌서벼룩과빈대가 술과음식을 다먹어버리고 머리끗해서 발끗까지발가케취해서 이러나지도 못하고 안저잇섯습니다。

이꼴을보고 이가골이 낫습니다 「손님을 청해노코 이럴수가잇단말가」하고 시비를 걸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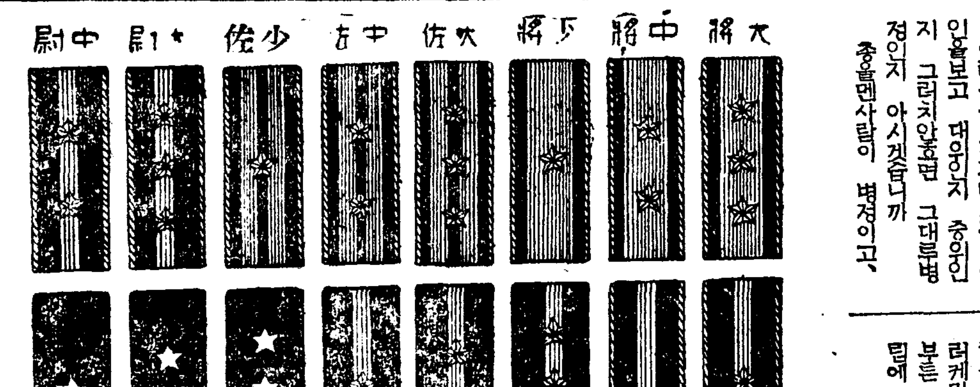
이소리를드른 벼룩은 술이취한김이라 벌떡이러나서 「이건방진놈아 무슨 소리냐」하고 이의등덜미를후려첫습니다

모처럼 청한손님이 서로차우는것을보고 빈대는 주인생각에 미안해서 술취한몸을 비틀거리면서 싸움을 말린다는것이 벼룩과이가 안고쓰러지는 통에 그미테 드러가버리엿습니다 그리하야 아조납작해젓습니다

싸움은 간신히 그첫지마는 그때에 끄치낫스나 빈대는 지금까지도 납작해저잇고 이는 벼룩에게후려갈겨마즌자욱이 지금도 등에시커머케 남앗습니다。

벼룩과 빈대는 아조 술이취하야 새빨간몸둥아리가 그냥잇지안습니까

륙군의견장



여러분은 길지나가는 군인을보고 대위인지 중위인지 그러치안흐면 그대로병정인지 아시겟습니까

총을멘사람이 병정이고、칼을찬사람이 장교거니 이러케만 알지마시고 억개에 부튼 견장을보시고 다음그림에 마처보시면 아시리다

의사스런사람들

—〈엣날이야기〉—

그어노흔획을 짧게하는재주

엣날 어느나라에서 신하들이 모혀 이중에 누가제일재주가잇슬가하는 이야기가버러저 며칠두고 의론해도 알어낼재주가업섯습니다。이걸보신 그나라임금님이 마루우에다가 줄하나를그어노코하시는말슴이

「경들중에 이줄을 손대지안코 주려볼재주가잇는냐?」고 물으셧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을해보아야 그줄을 짓거나 닥거버리지안코 주릴수가업섯습니다 그중에『빌바―르』란는 신하가썩나서더니 그줄여페다가 그줄보다 더긴줄하나를 그어노핫습니다 당정말 주리지도안코 닥거내지안코도 임금님이 그으신줄이 작아젓습니다。

세가지문제

어느나라에 착한신하한사람과 악한신하 한사람이잇섯습니다。

악한신하는 언제나 착한신하를해치려고햇습니다。그래서 하루는 임금님께 다음 세가지문제에대한 대답을 시켜보라고 햇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착한신하를 불러서 악한신하가 시키는대로 무르셧습니다

一、지구(地球)의 한가운데는 어디쯤되는냐?

二、하늘에 별은 몃개나잇는냐?

三、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그수가 얼마나되느냐?

이에대해서 착한신하는 우선 집팽이를 똑바로 땅바닥에세우고는 여기가 이지구의 한가운데다 만일의심나거든『카—잔』(악한신하의일홈)가 손수 이지구를 재여보라

그다음은 양한마리를대리고나와서 하늘에잇는별은 이양의터럭만큼잇다 거짓말이거든『카—잔』가 심심할때에 헤여보라 고소리질럿습니다

그리고 세재문제는 똑바로대답하기어렵지만 이세상에사는남자나 여자가 다죽엇다면 틀림업시헤일수잇다고 대답햇습니다

少年四月號全國發賣

꼿밧보다 찬란한 "少年"四月號 어린이크는집에는 다 한책씩잇다!

★철한 쌍(童話) 朴泳鍾
★산부처님(童話) 鄭潤錫
★金賞牌(童話) 洪蘭坡
★流星이야기(科學) 望月草
★一日一善(漫畫) 金龍煥
★재미나는말(趣味) 崔鉉培
★꿈이야기(科學) 沈亨弼

이상한꿈(特輯) 이상한꿈·무시무시한꿈·고마운꿈
□멸어진재명 金晋燮
□꼿이피려면 崔鳳則
□매마즌다리 鄭潤錫
□미국서꾼꿈 朴泰俊
□내목을잘라 宋影
□솔개가되여 洪一吾
□나를깬사람 李軒求

★畵報 億年前새들
★畵報 우리아기돌잔치
★畵報 원숭이大會

入選童謠集
□용기장사…李願秀
□새 벽…金潤榮
□밤 루 정…金英姬
□눈눈눈…朴文在
□꼬마리…張鎭瑩
□지냇물…申鉉

☆봄마지☆
★봄나드리
★이달의꼿밧 李德鳳
★과일나무눈 金圭銀
★나비와꼿 鄭玄雄

선머슴武勇傳 冒險小說 史又春

幼年童話
★쇠 젓…崔信國
★참새와파리…李壽益
□그림俗談集 □척척問答 □少年談話 □少年娛樂室

少女小說 지붕속의王女 기다리고기다리던李雲先生의長篇小說

少年作品大募集! (자세한것은 四月號에)

굉장굉장! "少年"四月號는 첫돌마지 記念特別號!

少年小說 自轉車 全鴻林 金龍煥畵

探偵小說 白假面 金來成 白華畵

단十錢 (送料一錢) 一年치 一圓十錢 ·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 八七八五)

文化的探索
歸化明人과文化 (19)
湖岩

明淸交代의時에 明人의 [illegible]東來한者ㅣ 前後에 그數를 헤아릴수 업스되 그朝鮮의 文獻우에 傳하는이만 들드라도 二十餘人에 達한다. 그중에도 [illegible]의 子孫 [illegible]은 [illegible] 甲申이요 [illegible]에 따라온 무리로서 그네 一行十三人과 그 [illegible]人이 京城 [illegible]下에 [illegible]하야 「明人村」을 [illegible]하고 살엇슨것은 오[illegible]까지 有名한 이야기거리가 되여잇는바다. 이보다 압서서 丁丑에 [illegible]東이 [illegible]으로부터 [illegible]하는길에 [illegible]의明[illegible]을 [illegible] 함께 거기서 [illegible]한 田好[illegible]가튼이는 그時十餘人과함께 京城에와서 [illegible]에 [illegible]하게 되엿는데 [illegible]이가 好[illegible]에게 [illegible]하되 [illegible]지저마시지 아니하므로 [illegible]

[illegible] 明人村과 [illegible]에 엇든그네明人들은 대개가 上[illegible]의 文化人으로 [illegible]에게 「[illegible]」하게다는 [illegible]下에서 [illegible]東來하니만큼그 節行이可[illegible]한것이 엇섯다 [illegible]에는 이를明遺民의節行을 高調하는 [illegible]에잇서文化에 [illegible]한것은 저절로疎略하게된듯하다. 그러나仔細히 살펴보면그네들의 기치文化的 발자취가 아주 업는것은 아니다 一例를든다면 [illegible]이 내종에 [illegible]에 [illegible]하야 二字를 낫코도 [illegible]十人이 잇섯는데 모다 同[illegible]하야 北俗이만히 이에化하게되엿다함과 또明[illegible]

[illegible] 그가[illegible]하야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그[illegible]을 만히 [illegible]에 [illegible]하게도엿다함파가튼 이다 이밖에 아니라 明人 文[illegible]는 [illegible]에서 살엇는데 일수소[illegible]을 [illegible]하야 [illegible]에 바처더니 [illegible]에서 그에게 [illegible]엇다하엿고 明人[illegible]는 [illegible]에 [illegible]하야 살엇는데그 나히가 겨우十四歲나 [illegible]法에工巧하엿다한다.

이러케 여기저기 [illegible]한 明[illegible]의 文化的片[illegible]을 [illegible]한다면 이밧게도 얼마든지 잇슬것이다. 그러나 [illegible]外에 文化의씨가 그네[illegible]人의 手를 [illegible]하야 [illegible]中에 떠러진것이 잇는것을 알어야 하

[illegible] 明[illegible] [illegible]이 [illegible]하던 [illegible]하야 [illegible]하다가 七十餘에 죽 엇는데 일쪽 [illegible]에서 [illegible]에게 [illegible]를 [illegible]고 宋[illegible]이 그[illegible]를 世守하기로 [illegible]하엿다하니 이로보면 [illegible]中의「상후」는 [illegible]의 [illegible]한인듯하다.

昭顯世子를 모시고 東來하야 그後[illegible]때 [illegible]까지 된 明[illegible]는「能[illegible]·[illegible]」라고하야 [illegible] 그의[illegible]法을 파밋그[illegible]法이 宮中에 떠러저잇슴을 [illegible]할수잇다. 또 明[illegible]人으로 朝鮮宮女가된 이중에 [illegible]가튼이는 中[illegible]의 [illegible]로 [illegible]가 [illegible]하고[illegible]에 [illegible]하엿다하며그[illegible]는[illegible]에 能하엿다한다.

學藝

三月創作評 (五)
中·短篇의規定과 減少되는讀者의興味
朴英熙

今月의 作品評은 以上으로씃를 마치려는바이다 그外에도作品이 아주업슴도 아니나 다른것을 省略하여서 바리여 煩거러움을 避하려는바이다. 近日로 에띄우는것은

一雜一 誌에 나오는 所謂 短篇이나, 中篇이니 하는것의 그確實한 標準이업는듯이 보이는까닭이며 作家自身까지도 어느때는 그標準이 曖昧한듯이 보이기도한다.

흔이는 分量을가지고 그短, 中을決定하는모양으로 分量이만흔 短篇을 雜誌紙面關係로, 문득 中篇이라고 命名하고 二, 三回에分해서 내는수도 잇는데 作家亦是 이에 對한 아모러한感想도 나타내지 아니하다 讀者側으로본다면 그러까닭에 아모 興味업시 읽다가 책을던저버린다.

우선 東京에서 오는雜誌로만 가지고보드래도 적어도 短篇으로 百頁以上 한번에내기는 또한例事다 勿論 아즉도 몃十年이 지내야 그文化水準을 따러갈지 모르는 아주貧弱한 朝鮮文壇에서 그것을 말할배 아니며 作家自身도 [illegible]百頁以上의短篇을 쓴사람이 업는듯하고, 만어서, 十頁, 그러치안으면五, 六頁에서上下하는 名實 한가지短篇程度에 머므러 잇스며 雜誌編輯者들의 原稿請托書를보면 題目圖解, 或은評論이라고하고

一原一 稿紙三枚, 二枚, 或 十枚, 이러한 文을 보게되니, 이것은 雜誌의 外形, 尖端化하는 技藝만을 생각하는것이고, 文의本意를 생각하지안는것이다. 나는 대게 이러한 散文에는 내能力이 그에 미치지못함으로 拒絶하고 말어왓지만 이번에 作品들을 읽은 동안에도 그러한 不快한 感想을 이르키게하엿다. 그러므로事實로말하면 이번 評에는 所謂 中篇이라는것까지 評해보려하엿스나, 모두紙數가 업서서 그에 밋지못하엿다.

論이 쓸데업는대서 머므럿다 上評한 여덟의 作品에서 보면, 그의 文의 觀察의素는 잇슬지언정 그取材가 相似하엿한 늑김이 잇서서, 한편으로는 그[illegible]치못한데 寂寞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同一한 範圍에지미 잇는것이다.

勿論 이러한範圍는 毎月마다잇는現象이 아니요 今月에 偶然한事實이지만 그러나 그中에서 [illegible]이라고 말해도 조흘만한 한가지의 事實은 무엇보다도 作家들의 題材가 消極的圈內에잇는것이다. 이러한것도 [illegible]이라고하야 等閑이생각할수도 업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一作一 家의 才質과 觀察파 修養問題에도잇스나 이제 그것을 論하지말고 그러한 傾向은 社會的으로 或은 時代的으로 생기는 어떠한 特殊한 雰圍氣의 所産이라고말한다면 그말도 全部가 個人責任은 아니다.

社會的生活의 激流에서, 作者의 銳利한 觀察에서 構成되는 文學的課題로부터 생기는 生活이 作品의 題材로 나오는일이 甚히 적어보인다. 이곳에서 나는 上論에서 말한바와가티 그 原因을 兩面에 돌려보내려는바이다.

文學의것이 單純한것이 아니매 또한 그러케 [illegible] 생각할것은 아니다. 그러면 文學이 近間에 와서 朝鮮作家의 손에서는 漸漸單純해지며 消極的인 事實도 化하며서 잇는듯하다.

예전에 作品에서 情熱의火華를 볼려든 旣成作家들은 정작그 맛[illegible]것이 업서지고 思想性에서 脫皮하는 作家들은 그

一範一 圍가 점점 조라드러 모르가 一大慨 時代를 거러가는 기[illegible]을 주는 것이다.

前者의作家는 文藻으로 內容의凡俗을 補充하려하며 後者의 作家는 趣味的影子로서 思想性의 [illegible]을 말하려는드시 보인다.

이러한곳에서 創産物로 나타나는것은 假飾과 倦怠뿐이니 내가 第一回文에서 말한바와가티 情熱의缺乏이 即그것이다. 穿鑿의不足이 即그것이다. 또한題材의平凡도 即그것이다.

그러므로 이情熱이란 作品을 쓰려는 努力이나 或은 그意에 對한것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作品에서 나타나는 精華를말함이며 그精神을 말함이며 人生에對한 기픈情熱을 말하는것이다. 過去十五, 六世紀로부터 생기엿든 文藝復興이 把握하엿든 그情熱을 [illegible]하여마지안는다. —(끗)—

元耘谷의秘傳
華海師全
崔益翰

麗末史話 (8)

華海師全篇次·目錄
『華海師全』 耘谷 元天錫 總斷 / 伏臣 酒世東 編輯

- 卷之一 本朝問對 / 元主問答 / 明朝問對
- 卷之二 備耗 / 出處
- 卷之三 諸子問答 / 家範
- 卷之四 師筵先生務書奏剳
- 卷之五 師全錄跋 / 跋尾 / 諸子論贊
- 卷之六 諸子敍述 / 家事 / 歷代傳理歌—亦態明理獻軒徵 / 歌謠獻辛亥
- 卷之七 東方淵源錄 / 元耘谷居義 / 後王話忠情謝—王在江華江陵時 / 後王泣謝陳情文—王就于江華江陵後 / 大提學申伯淸上疏

本書의 具體的內容은 師述의 便宜에 依하야 다음 말하려니와 위선讀者의 槪念을 돕기爲하야 篇次와 目錄을 原文그대로 옴겨씀이다.

本書 主人公인 不說籍申賢의 直接著述로서는 第二卷『備耗』一篇뿐이고 其外는 모두 及門, 私淑諸公이 先生의言行出處와家世系統, 子孫舉行, 學問淵源, 其他關聯잇는文獻을 記錄 또는蒐輯한것이나 目錄만으로도 대강 表示되는바이다

卷之四『師筵先生務書奏剳』는 申賢의長子用漑께서記述한 明에使臣으로 갓슬적에 明太祖朱元璋의詰難問難에對하야 務書奏對한것이다 元耘谷은 不說籍에게는 直接受業치는 안햇스나 師筵에게從學하앗스므로 師筵은 耘谷의師門이고 不說籍은 그의祖先生이엇다 卷之七『耘谷居義』는 耘谷의 處身行義에 對한記錄인데 本書共編者酒世東의 [illegible] 耘谷의說解를 어더서 本書의 끄테 附錄한것이다 『後王話忠情謝』『後王泣謝陳情文』二篇은 目錄에도 表示한것과가티 王昌은江華에서, 王昌은江陵에서 流配되엿슬때 또는 그後被殺되때에 恭讓王이 陳情文을 衝草하야 鄭夢周에게依賴하야 兩王의生前과 神前에 드린것이니『大提學伯淸上疏』와 添接한內容이 잇는것이며 李穡와는 不共戴天的文字이다 伯淸은 누구나하면 申賢의

華海師全跋尾

卷之五中『跋尾』는 耘谷이本書編輯後에 쓴跋文이니 本書의來歷과 編輯上苦衷과 師門家世의扶植 及其學統의傳後에 對한苦心血誠을 대강 敍述한것이다 本書의史的認識을 明確히하자면 讀者는 이것을 먼저보는것이必要하므로 아래에 그全文을 引用한다 譯述보담은 原文그대로가參考者에게 有力할뜻하야 [illegible] 吐分節만을 베풀에 그치노라

跋尾

日月이 晦에 高麗海士元天錫은 謹按컨대 先生於本國及元에 [illegible] 及仲[illegible] 子(諱), [illegible]子(諱)—迭相隨 하야 載 先生事實하야 合十二卷을 傳諸從家러니 [illegible] 史에는 [illegible]라고하얏고 [illegible] 太古이다— 許者와 [illegible]史官하야 [illegible] 命分滿하야 [illegible] [illegible]之하며 或秘不肯出者는 必被覺하면 [illegible] 罔有攸傳하니라

其後에 花山金[illegible] 及其子三近 [illegible]

先生沒後에 [illegible] [illegible] 元凱 [illegible] [illegible] 李公[illegible] 及 宋因(革命後에首之하야 反陷軍兵하니라), 金[illegible] 以 先生於本國 及 入元事略으로 [illegible]之하고 又以己[illegible] 으로 [illegible]하고 且 入皇明으로 [illegible] 義大方의 [illegible] 先生의[illegible] 及其子[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之하야 [illegible]之一部하니 合八卷이라 而名曰華海師全이라하야 考[illegible]하니 [illegible]日, 吾先生[illegible]이 爲法於世敎者—泯滅然하야 所存이 [illegible] —나 亦幸其略爲說明이로다 吾亦[illegible]하야 以彰[illegible] 라하더니 後에 [illegible]加二卷 [illegible] 編하야 [illegible]

리듬·패타ㅡㄴ
石耕牛

愁心歌나 寧邊歌나 山念佛은 언제어떤곳에서도 듯기조타. 그것은 結局그들노래를 支配하고잇는 리듬·패타ㅡㄴ(型)이 우리의生理에適合하기 때문일것이다. 다만그들노래의 藝術的價値與否는 이자리에서 그다지問題가아니다.

그러면 그들을 支配하고잇는리듬·패타ㅡㄴ을 分類한다면어떤位置에 둘것인가? 大體로 厭世的이 아닌가한다. 勿論 그全部가全部 頹[illegible]마나 歌詞에잇서서 厭世的인것은 아니다. 그러나그 組成하고잇는 리듬이結局에잇서서 우리를 現實의斷念과 無限不定한 悲哀의世界로 끄을고가는 事實만은 朝鮮노래에 귀가 익은 사람이면 누구나 首肯할수 잇는일이다. 朝鮮노래는그리 [illegible]調段階에잇서서 實로慟哭과 一致할뿐만아니라 慟哭그自體가 高調하면 노래가되고 만다. 前者의 代表的인例는 『배뱅이굿』이고 後者의代表的인例는 婦人네들의 哭이다.

그러나 이만것은 누구나 다 알고잇는 事實이다 이 事實을 참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科學의態度로써 이事實에接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朝鮮노래가 朝鮮人의 귀에 第一어울리는곳은 어떤點인가? 그것은 어떤 리듬·패타ㅡㄴ을 基礎로하야 [illegible]고잇는가? 그리고 그것은 [illegible]한다.

그와마찬가지로 西班牙의아이 아이 아이』를 드를때 舞踊을聯想하고 伊太利의『오ㅣ소레미오』를 드를때 歌手를聯想한다. 그러나 寧邊歌나 山念佛을 드를때 우리는 무엇을聯想하는가? [illegible] 업다. 文化人으로서부끄러운일은 [illegible]어떤點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傳統을 全然버서나선 永久한 詩的生存을 圖謀할것이어니 傳統에서 出發하야 傳統을 揚棄하는것은 얼마든지 조타. 그러나 처음부터 傳統에 對한 無知를 暴露하는外에 아무 利益이업슬것이다.

英國某批評家曰—『나무는 사람보다 賢明하다. 그들은 水氣를 일흐면 시들고마닛가.』

無等山遊記 (6)
主峯庵의廣石臺
第二日(5) 李殷相

鄕土文化를찾어서

[illegible]石臺 우으로 바윗덩이들이라고 넘어 한편들이들 도라나가니 山勢는 直立狀으로하 가질러나려가는데 危殆하게도일어선 石柱 몃개가 눈아페 옷둑나타나고 그아래로 數十名안저놀만한 큰巖石이 잇섯습니다. 이곳이 廣石이 바로이山의 立石, 瑞石과아울러 三大名物의 하나인 廣石이오 이廣石의 右側에옷둑솟은 石柱들은 三隱石또 혹은五隱石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廣石臺의左側에는主峯庵이란 [illegible]한庵子가 자리를 잡앗는데 뒤로는 無等山 立石의 奇岩들이 雄奇하게들 어서 [illegible] 가튼 無等山이로되 光州和順의 郡境이 이미지나온 [illegible]로써 나누엿스매 여기는 벌서 和順境內의 寺刹이거니와 [illegible]를 據하면 菴이아니라 寺로적히엿던만큼 往昔에는 規模가 적지안엇던것을 짐작하겟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이主峯菴의 첫主人이 義湘祖師라하고 [illegible]創한이가 順應大師라할만으로도 알것입니다.

혹 義湘初創의說을 疑訝하는이도 잇다고하나 나는 疑訝하지아니합니다. 權克和의 記에도 義湘創建의文이 적혀잇슬뿐아니라 그것이 [illegible]만도 義湘의 有名한 傳說十剎로보아 그가 바로저건너편 [illegible]寺(智異山)에 와잇든것이 的確한 史實이매 이 無等山에 와왓슬것이 當然한 일일것입니다. 그리고 寺格을 가추어 創建하기로는 [illegible] 新羅元聖王十四年 戊寅(西紀七九八)에 唐으로부터 歸國한 順興大師엿습니다.

여기는 그가리 名祖師의親跡을밧은것만이아니라 道詵國師가 寺後에잇는 龍身臺에안저 松廣山聖德이想하고 저有名한松廣寺를 開創하엿다는古傳(興國記)도잇스며 [illegible] 가든大德이 이곳에와서 道를 닷갓스니 지금와서는 이가리 一小宇에 지나지안치마는 歷史的으로보아서는 忽待못할 자리인줄을 알겟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을 그歷史的인點에서 자랑코저아니하고 그風景的인點으로 자랑하려합니다.

廣石臺 瑞石立石群이 혹은 [illegible], 누인것, 이러선것, 혹은 멀기도하고, 혹은 [illegible] 저혼자서고하야 數百人이[illegible]되는듯이 玉을깍가세운듯한것이 奇觀壯觀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名山大刹에서는 조마만한봉우리어도 이름업시 그냥보리는것이 업는데 하물며 이가튼 神奇한 景觀을 그냥둘리가 잇겟습니까.

그러코말구요, 果然 權克和의記에는 三隱石十二獄라적엇고 [illegible]에는 十臺라하야 그臺名을 列記하엿스되 [illegible] 廣石, 風穴, [illegible], 松廣, 佛影, 法華, 說法, 隱身이라하엿습니다.

지금도 [illegible]名을 그대로傳하고 房主가나와 一一히 그것을指摘합니다.

廣石臺에나서니 東편인 [illegible]山, 求禮, 順天의智異山, 白雲山, 曹溪山들이 東에보이고 次例次例로 同福의 母后山, 長興의[illegible], 綾州의龍岩山, 靈岩月出山, 이들은 山들이 幸[illegible] 點考에빠질세라 고개를들고 이쪽을向하야 무슨命令을 기다리는듯합니다.

밤禮佛소리와함께 밝아오는 달빗치 오늘밤 나그네로하여금 잠못드게 하나봅니다.

主峯, 노픈절에 鐘소리 끈허지고
밤禮佛 마디마디 달이점점 밝아오네
三隱石 十臺들우에 밤새도록 헤매까나.

하늘은 琉璃갓고 山은 水晶인데
玉가티 찬달이라 天地가온통 얼붕할데
人生의 라는煩惱를 씨울까 하노라.

『醫窓小話』
科學的迷信 (下)
趙漢英

이에 여러學者는 愼重히도 詳細히 各方面으로 以科의血液型氣質說의 眞否를 實驗하고 研究하여온 結果이는 全혀空想이며 科學的으로何等 根據가업는 謬說임을 確證하고마럿다.

即 一例를들면 運動選手에는 O型이만타고 햇는데 이것은 唾液으로써 血液型을判定하기때문에된 誤謬이엇다. 唾液으로 血液型을檢査하면血球로檢査할때에 比해서 一○乃至一五%나 O型이만히出現되는것이다. 唾液으로檢査하면 當然히 O型의率이 만어진다는關係를 生覺하지안키때문에 無意識的으로 誤解햇든것이다 또學生, 靑年, 敎師 其外의만은사람의 血液型과 氣質을檢査해서 學業成績, 操行, 體格, 營養狀態, 交友關係, 職業關係等을 詳細히調査해본結果 하나도 血液型에따라서 그사람의 氣質이左右되지 안흠을알엇다.

그러나 一般大衆은依然히學說에만 魅惑되여서 그學說을 吟味하기前에 곳 이것을 應用하라는 傾向이잇서서 血液型과氣質과는 不可分의關係가잇다고 盲信하기때문에 아직까지 萬事를血液型으로說明하라는사람이 相當한 知識階級에도 만이잇다. 夫婦間에 不和해도 이것은 血液型이相合지안어 그러코 使用人의性質을一一히 血液型에 連結해서 批判하며 友人關係의 親疎도 血液型으로 說明하라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盲信者에게對해서 血液型과 氣質과 何等關係가업는것이 科學的으로判明되엿다고해도 冷笑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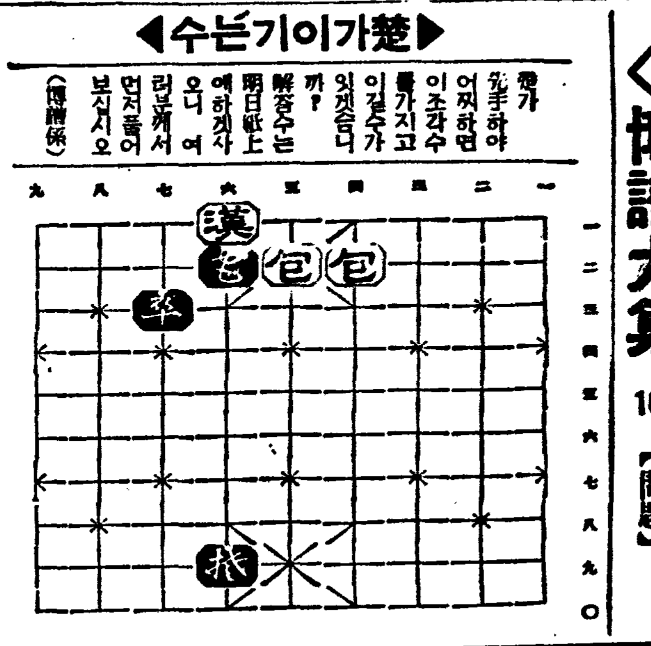
血液型과 氣質과의 關係는사람은 [illegible]더나서 그사람의信念이되고 信仰이되엇다 이를科學的迷信이라할수바게업스니 우리는 決코이러한 科學的迷信에 끌리지안토록해야겟다 우리의血液型과 氣質파는 何等關係가업다함을 한번 더말해둔다. —(끗)—

新刊紹介

◀少年 四月號가 나왓다 發行所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定價十錢 送料一錢
◀講談月報 一月號 發行所 [illegible] 定價二十錢 送料三錢 一手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大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番
◀新人間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二一八番 定價十錢
◀예수 三月號 發行所 平壤府下水口里九○ 예수교會中央道院 振替京城一一三六五 定價十二錢
◀朝鮮實業俱樂部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二丁目一○○ 朝鮮實業俱樂部 振替京城八五四○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博譜大集 109 【問題】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 發表하겟사오니 여러분은 먼저 풀어보시오 (博譜係)



腦는 明快하고 憂鬱氣分은업서지는
高山仙酒

滋養强壯劑로서 神經衰弱한분 根氣薄弱한분 疲勞倦怠한분 虛弱體質인분 胃腸衰弱한분 不眠症, 숨갑븐분 强腦强精의目的 病後衰弱한분

몸가운데 어데라도 故障이잇스면 곳 氣分이 조치못하게되는것이지마는 特히 頭腦에 故障이잇스면 頭腦中에 모래나채워두듯이 무겁고 氣分이 憂鬱하고 조금만일을해도 倦怠를 느끼고 頭腦가흐릿해서 무엇이던지 모르게되며 실증이 나고 全혀根氣가업시된다 그리고밤에는잠이잘 오지안코 잠이들어도 꿈만꾸이여서 아모러도 熟眠을할수업게된다 이괴로움은 辛苦하여본사람만이아는 苦痛이다

療法으로서는 氣分의 轉換에留意하고 頭腦를 休養시킬것即充分히熟眠을하면반드시苦痛을 버서날수잇다

그런데 信州特産滋養强壯劑인養命酒는朝夕 한잔식愛飮하면 五臟六腑에숨어들어서 血行이조아지고 食事가 맛잇게늘고 身體에活氣가넘치게된다 또就寢時에 한잔먹고자면 몸속으로부터 혹군혹군 더워지고 和氣잇는 睡眠에 글리어 흠뻑安眠하게 되므로 翌朝는 頭腦가 明快하게 가벼워저서 憂鬱氣分을 훌훌 털어버리고 爽快한 氣分으로 된다 머리를 쓰는執務家와學生들이非常히 조아하는것이니아무라도 한번 愛飮해서 그眞價를 體驗하라

小瓶進呈
意外 라할만치好感을 주는 深山仙酒로 芳香美味하야 먹기조타는것을 實物로 紹介하기爲해서 養命酒試飮用小瓶을 無代로進呈中이니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로 申込하라

全國藥店, 百貨店, 食料品店에잇슴, 品切일時는 便宜上東京出張所로, 前金으로送料不用 代金引換은 實費를要합니다
携帶用 圓瓶 大 三 四 [illegible]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の九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 靑山 五二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九番

問 化粧하고 얼마되잔어서 곳기름이끼이게되는데요

答 脂肪性인분은 化粧下에 꾀注意하시잔으면 봄철은 皮膚의 分泌가 旺盛해저서 밀리기쉽고 ▲여드름 ▲부름의 原因이 됩니다 마스타ㅡ바니싱이면 가볍게 상영하게 살결에녹아드러 脂肪을量을적당하게 調節하므로 化粧下에 第一이오며 살결의 專門滋養藥타세란의 效果로健康한若肌가됩니다

問 化粧을하여도健康한살빗츠로 보이지안는다고하는데요

答 運動, 食事에 注意하서서血色을 조케하서야할것은 잘아실줄압니다마는 化粧으로 어것을補充하는데는 新鮮하고 生生한비같을가진 마스타ㅡ크림을 쓰시면 고만입니다 日本女性의 살결에 가장잘 맛는 複合微粒子이고 그리고 過剩脂肪을 吸收하는 特殊活性白味劑配合이므로 오래지속하고 밀리지안습니다

•말숙한爽快味·化粧下에第一!
•殺菌力强해서면도뒤에도最適!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ㅡ바니싱크림)

方酣한 細碁戰 白의 頹勢挽回

三玄子

初盤以來 細碁優勢를 가지고잇든 黑은 前前回및 前回에잇서서 先手와 形勢를浪費하야 그러한優勢가 거이 減殺되엿거니와 그러나 이제오히려 白의優勢와 不安을 播設함한 優勢는 保持하고잇스니 일로는 다시 그러한 優勢가업스면 勝利의 月桂冠이 저의것이 되게는데 바야흐로 細碁戰이 全局的으로擴大된 어떠에잇서서 白의長技는 細碁工作에 엇든것가튼보엄으로 黑이 最後勝利를 確保함에는 적지아니한 難關이잇슬줄안다 그리고 黑一一九寅의一六은 庚의一一에 두어 中央大場의 白地를 減殺함을 힘쓰는것이 올타고 생각한다 그러캐두면 白庚의一〇 黑辛의一〇 白庚의九가되여 十戶內外의 白戶를주리고 先手를保障할수잇스니 그뒤에 請와 겨러 一一九 寅의一六에두어도 늣지아니할것이다 그리고 黑六三戌의一五와 六五巳의一五차 업스면 이제오히려 白이壬의一六으로侵入하야 어黑地中에서 生還를 꾀할수잇지마는 여제 그것은 可能치아니하니 黑一一九를 二、三戶에지나지안는 寅의一六에 두어 先手를抛棄하는것은 섭거운일이다 그러대 그와가티하야 先手를가지게된白은 이제機敏한 活動을 展開할수잇게되엿스니 勝敗의 機微는 자못逆睹할수업는것이잇다 白一二〇庚의一、黑一二一卯의一、白一二二巳의一、黑一二三寅의二는 모두先手를活用하는 細碁工作에잇서서 常例의勝讓이오 또白一二四寅의一九、黑一二五丑의一九、白一二六卯의一九、黑一二七子의一八과 白一二八甲의一五、黑一二九乙의一六、白一三〇甲의一六、黑一三一甲의一七 白一三二甲의一四、黑一三三乙의一七등도 그러하다 그러고 白一三四庚의一一은 先手가될수업스나 이제 最後로 남은大場이나 띠先手를活用할것이업는 現實에서 正當한打點이다 그러케 黑一三五壬의一二는 一一九寅의一六의 十戶三戶로一三四庚의一一의 內外와 交換하야 中央大場에 白戶가擴大됨을 與奪防衛하지 못한바를死銭方欠의 感이엇지아니하다그러고그를 辛의一二로 지지지못한것은 辛의一二로 끈어지는까닭이니 그러므로면 저黑一三五를 子의八에두어白의脆弱을 衝擊하야 壬의一二로 攻하면 常例의 局面이오 白一三六辛의一一、黑一三七午의一四、白一三八子의一三은모다 常例의 局面이오 黑一三九子의一二、白一四〇壬의一二 黑一四一乙의八、白一四二乙의九도 그러하다 그리하야 이제白은 비로소 頹勢를 挽回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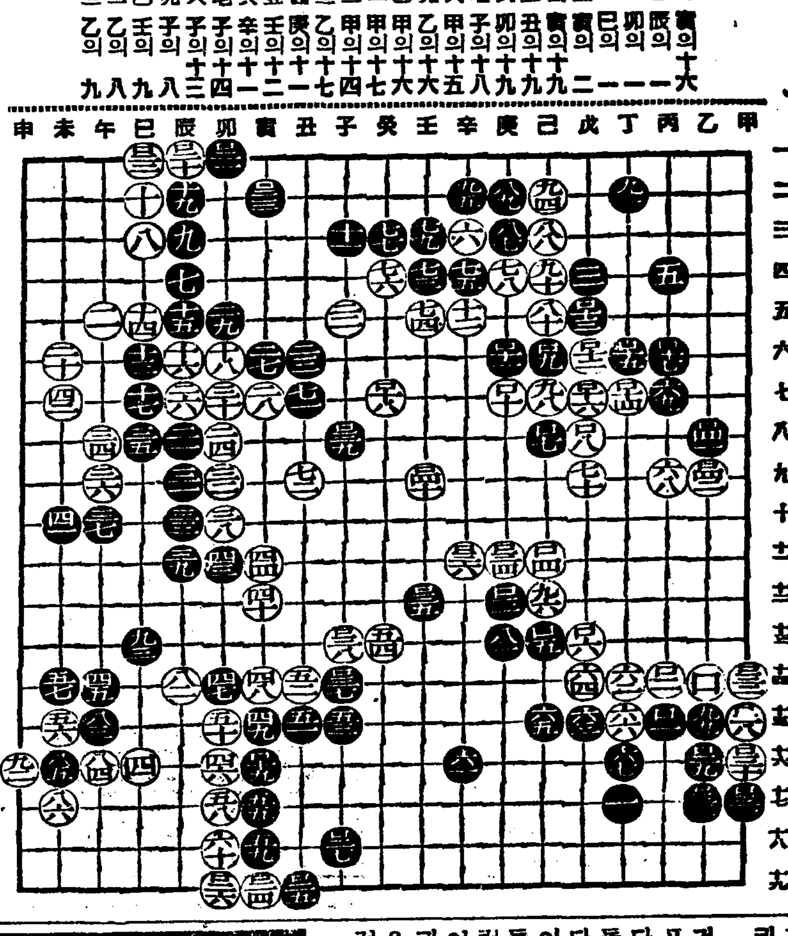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10)—

白 丁奎春
黑 金秉浩

●一一九 寅의十六
○一二〇 庚의一
●一二一 卯의一
○一二二 巳의一
●一二三 寅의二
○一二四 寅의十九
●一二五 丑의十九
○一二六 卯의十九
●一二七 子의十八
○一二八 甲의十五
●一二九 乙의十六
○一三〇 甲의十六
●一三一 甲의十七
○一三二 甲의十四
●一三三 乙의十七
○一三四 庚의十一
●一三五 壬의十二
○一三六 辛의十一
●一三七 午의十四
○一三八 子의十三
●一三九 子의十二
○一四〇 壬의十二
●一四一 乙의八
○一四二 乙의九

…死點… ●一五五 卯의七 ●一六一 戌의七
…粘… ○一五八 卯의七 ○一六六 戌의七



失業樂士는 悲觀마라! 스토코프스키—의 新說

토—키映畵가 생겨난뒤에 常設館內에잇던樂士들이 失業하게 된것은 그當時크다란 社會問題엿스나 이것은 技術의發達이가저온 적은悲劇으로 지금은 누구나이問題에對하야 생각해보랴고도하지안는다 그러나『오—케스트라의少女』로 有名해진 필라데피아交響樂團의 指揮者 레오폴드·스토코프스키—는 最近월트 디스니의 新作長篇漫畵의 伴奏音樂의編輯을 擔當하야 벌써完成되엿스므로 그成果如何는 各方面에非常한期待를 갓게하고잇는데 最近 그는 토—키音樂에 關聯된失業樂士의 復職에對하야 다음과가튼意見을 말하엿다。映畵가 싸일렌드로부터 토—키에 옴겨옴에따라 數多한失業樂士를 나엇다 그러나 그들中 一萬八千名은 樂士로서가아니라 다른意味에서 復職을할수잇다。將來토—키音樂은 漸漸複雜해질것이므로 劇場의 映畵技師로서는 音量을調節할수가업다。따라서 正確한 音을 내지못하므로 觀客에게滿足을 주지못할것이니 어러케되면 各劇場에 한사람式의音樂專門家를써서 音量의 調節을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이러케된다면 米國안의 常設館에 一萬八千이나잇스니 여기에 一萬八千의 失業樂士가復職할수잇는것이다。

十九日(土曜)

◇午後六時노래공부(二) 一、봄 二、종달새
◇同六時二五 어린이新唱 朴景嫄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戰地詩文巡禮』(二) 李晶燮
◇同七時四〇分 講演『文化發祥이야기』 曹成喆 黃義敦
◇…女流名唱의밤…◇
◇同八時一〇分 一、短歌 二、唱劇調 朴綠珠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五分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三顧草廬 金如蘭 鼓手 韓成俊
◇同九時 (東)피아노獨奏 쇼팡作品—第一夜 前奏曲(全曲) 레오니—드·크로이차—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歌舞伎古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將士慰問夕
◇同九時 (東)피아노

二十日(日曜)

◇午前九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平壤)—平壤高普—
◇午後〇時五〇分 伽倻琴散調와 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아서라世上事 나、唱劇調 토기타령 崔鳳翼 枝鼓 池龍九
◇同一時二〇分 漫談『독갑이담배갑』 崔景源
◇同二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京城)—京畿道商業—
◇同六時 (釜山)라디오朝鮮求景(全國中繼)『南鮮、中鮮篇』 DK어린이會 釜山어린이會
『日埃國際放送—』埃及카이로로부터—
◇同六時二五分 一、人事 二、講事經過 三、日本國歌 埃及國歌 嘉納治五郎 永井松三 바이에·라츠—르伯 모하메드·타엘파샤
◇同七時三五分 一、孔明歌 二、靑春歌 三、진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開城난봉가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쇼팡作品—第二夜 (一)前奏曲 A音(全曲)繼續 (二)練習曲 A音調作品二十五番의一 G短調作品廿五番의二 G長調作品二十番의三 十番의八 E長調作品廿五番의十二 O短調作品廿五番의十二
◇同八時二五分 라디오說話『어머니』—安夕影作 池京順
◇同九時 (平)宗敎音樂 一、混聲合唱 하나님께讚頌하라 놀드作曲 二、同 主를讚揚해 헨드作曲 三、同 樂園 四、同 크신榮光 윌스作曲 五、混聲四重唱 福地 토—너—作曲 六、混聲合唱 내主를 가까히 메이슨作曲 七、同 저하늘 베—토—벤作曲 平壤京醫敎會合唱隊 伴奏 朴約翰 指揮 朴泰俊

第一放送
◇午後一時 滿洲로부터講演
◇同一時二〇分 (城)尺八
◇同一時四〇分 (城)追分
◇同六時 (釜、城)라디오求景
◇同七時三〇分 (東)日露戰役
◇同八時 (東)長唄
◇同八時二五分 (東)피아노
◇同八時五五分 (東)物語

二十一日(月曜) (春季皇靈祭)

◇正午 入學試驗合格者發表(京城)—京城貞信女學校—
◇午後〇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드) 解說 朴慶浩
◇同一時五〇分 大笒獨奏 一、平調會相 二、淸聲자진한닙 金永根
◇同二時五分 回心曲 河應男 金鍾男
◇同六時 童謠『長靴신는고양이』 金福鎭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春分이야기』 中東學校 權惠奎
◇同七時三五分 一、새打鈴 二、大字백이 三、興打鈴 趙蘭玉 趙錦玉
◇同八時 音律 靈山會相中 잔도드리 가락도도리 上弦 下弦 念佛 打鈴 軍樂 朝鮮正樂傳習所員
◇同八時三〇分 連續野談『友誼』(一) 張志浩
◇同九時 女聲合唱及獨唱 一、合唱歌劇『탄호이저』中 大合唱 二、二重唱 노래하라 (詹成女、張守突) 三、合唱 歌劇『魔彈射手』中 산양의 合唱 四、三重唱 즐거운새 (金司原、姜甲淳、金炳淳、金貞愛、白玉姬、林福童) 五、獨唱 아—牧童아(詹成女) 六、合唱 찡아 中央保育合唱隊 指揮 崔熙南 伴奏 任永善

第一放送
◇午後一時 (東)新日本音樂
◇同一時二〇分 (東)御詠歌
◇同六時 (大)國史譚
◇同六時三〇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手帖
◇同八時 (城)토—키—
◇同八時三〇分 (靜)歌謠曲
◇同八時五〇分 (靜)浪花節

필립핀째스 若劇에서公演

洋畵는 禁止되엿다하더라도外人으로組織된 째스빤드만은 此限에不在라는듯이 近間의서울에는 이種類의아트락숀이 盛히上演되고잇서서 興行界는 洋畵不足을補充하고잇다 유고슬라비아의째스빤드가 아직도 退京하지안흔 十七日부터 二十二日까지六日間市內若草劇場에서는 필립핀사람들로組織된 필립핀째스빤드의 아트락숀쇼—가잇는데 一行十三人은 매너자 卓穆祿氏의引導로 十八日本社를來訪하엿다

(사진은 필립핀째스빤드의一行)

中篇小說 女人命令 【72】

李善熙 作
崔根培 畫

외쪽길 (二)

숙채는 오늘도 설끄레잇는선황당바위로 왓다。 배ㅅ사람들이 치성 드리지 얼마되지안해서선 황당언엔 아직도 흰인 파출부스레이와 북어쪽피 콩나물이랖허저잇고 그리고 여전히그동배나무엔 여러가지 색헝겁피소지가 걸려서 바다바람을 따라날리고잇다

여게 모래는 별우히고 바퀴거려서 한참만 잇스면 눈이아프다。 그리고 비릐 비린한 바다ㅅ냄새며 쉬지안코 검은바위를 씻처내리는 물결이며 내다보면 뭇어업는 바다의 물꿈이 원통 견될수업는 고독을만들어서 사람이 그만 궤새기처럼 물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 몸을 잔뜩처먹고 죽어버리는것이 낫지 그무서운 고독을참아 당해내다는 장사는업을것이다。

숙채가 늘상 나겨안는 바위그바위우에 안저 나려다보면물속에오갓 해추—미역 김 파래이따위들이 돌위에 붓허서 물결을 따라 흐늘적거리는 모양이 마치 류리속에다 그여러가지 모양을 집어너흔것처럼 환이 들여다 보인다。

『누가 자살할 사람은업나?』

그러한 사람이면 위선 어바위에서 꺽구로 떠러질일이고 그리면 그해초속에 묻어잇든 문어란놈이 나와서 여덟개의 다리로 회회 친친감어서 수궁으로 모서들일것이다。

오늘도 날어 무척 청명하야 멀리 ××항구의 집들이 바둑돌모양으로 따문따문 느러노하보히고 그안은 무척 야단스럽고 혹난한 구경이라도 잇슬것갓지분주해 보인다。

『저안엔 유원이가잇다』

유원이는 그때 서울서 붓잡혀서 이래 칠년만에 집으로돌아왓다。돌아와서는 지금 저항구에 살고잇는것이다。

숙채는 그가 다닐것가튼길들을 눈어림해가며 날마다 그쪽을 바라보고잇다。

『유원이를 꼭 한번 맛나야할텐데』

사실 숙채는 어섬으로 유원이를 맛나러 왓는지도 모른다。아니 그를 맛나러 왓다。

유원이를 맛나려온 숙채 사실라길을 사이에 두고 그저울이 지나고 또봄이 오고 어러해겨란 아직도 맷나지못해고 또 알로로 영원히 맷나지못할지도 모른논바——사실라길한 나절 길이로되 두사람 사이에서 어려캐멉다。

우원이는 지금 숙채가 여섬에와 엇는줄을 알리엇스며 또숙채가 자기에게 그러케 긴절한 이야기가 잇는줄을 알리이업다。

사실 숙채는 그들의『맨발사랑』에서가 아니고 꼭한가지 유원이에게 상의하고십흔 일이잇기에 차저온것이다。

숙채가 다시 마을가오때 와슴때는 여편네들이 우물가에서 쌀들을 씻고잇다。 벌써 저녁때가된까닭이다。

숙채는 팔장을 옥으려 끼고 오다가 쌀씻든 녀편네들을 그저 지나옷수가 업서 그아페서 서 말을건닛다。

『쌀들 씻으시우?』

『애기어마이 어듸메가서 영구엥지(얼골)도 볼수가업소? 악가복순이네가 헐게(헐난궤)로 살마노쿠 자시라구 암만 차저댕기이 잇써야지?』

『헐게를 삶엇서요? 나는 잇섯드면 좀 어더먹을걸 그랫군』

『앙이 애기어마이 짓을 내노앗지비 복순에미 애기어마이르 빼고 혼자먹을것 갓슴?』

숙채는 얼른 집으로 드러가고십흐나 이녀편네들이 작고붓잡고 말을하는통에 그대로 엉거주춤 서잇는수밧게업다。

『그런데 어째 그리 양지가까츨하오。 치븐 사람갓당이。어듸 압호오?』

『글세 작구 오슬오슬 춥고머리가 압허서 죽겟군요』

『그게 앙이댓군 어서들어가눕소。 무시기 언치웟소가?』

『글세 낫에 점심 먹은게 체햇는지』

숙채는 이섬에와서 끔불하번 알른일업고 미역줄거리를 마우먹어도 체하는일이라고업든니 오날은 어찌아프지 악가서향닥해에잇슬때부터 작구추엇다。

『아마 고뿔이 드갯팡이。 작구 칩다고합보니』

숙채는 그만 방으로 드러와서이불을뒤지버쓰고누어버렷다。

U—C—18

宇津救命丸

北支의애기도 元氣잇게기루라

日滿과의구든握手、北平에도 明朗한봄이차저왓습니다 五色의旗幟下에 옴식옴식자라는 애기들도 日本의애기들과가티 宇津救命丸을먹고서 感氣에안걸리고 病을모르고 元氣넘치게씩씩한웃는얼골을 보이고잇스리다……

이러할때

感冒(熱이나고기침이심할때) 百日咳(개가짓는듯한기침) 消化不良(便이푸르고粘液이석겨잇슬때) 간기회충(시름시름보채일때) 胎毒(흉한태독이만히날때) 智慧熱(原因모를熱이날때)等

弱한 애기에게는 平素에 먹여주십시요 胃腸과 呼吸器가 튼튼케됩니다

藥價廿錢으로부터拾圓까지 各地의藥店에잇습니다

總代理店 ⓘ 東京·大阪 株式會社 玉置商店

絶對優秀!

大評判·大賞讚

즉시살결거칠을해소해서 윤택한健康美잇는若肌를만들고白粉下로도快適한効果가 잇다。

라고、레—도구레—무는 日本全國의방방곡곡은 말할것업고 海外의女性에게까지도 大評判、大熱讚을밧고잇습니다

何故일까요?

언제든지 國產最高峯의品質을자랑하는 레—도구레—무는…戰時女性에게 보다더아름다운健康美를……라고바라는 熱願이뭉치이고 品質의 向上改善에불이날듯한硏讚을 不斷히거듭한結晶인때문입니다! 한병한병이 科學的良心의 結晶인故로品質은 絶對優秀、小量으로도 潤氣잇고健康한 若肌를約束합니다

レートクレーム

中部版

豫定보다一年短縮 明春에全線開通
時局關係로晝夜兼行工事中
京春鐵道의竣工在邇

【春川】춘천(春川)의 숙망이요 전강원도민의 욕망이든 경춘철도(京春鐵道)도 마침내 실현을 보게되어 착착공사가 진척중인데 소화십오년도에 전통할예정이엿섯든바 시국관계로 일년을 단기여오는 십사년도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강원도관내만하여도 매일 삼천여명의 로동자를 출동시켜주야겸행하여 공사를 급속중이다 그런데 춘천관내(春川管內)에는 춘천역(春川驛)과퇴계원역(退溪院驛) 이외에이개소의간이역이 생길터이라는바 합계사개소이며 경춘철도 전선에 한하야 십칠개소의 정거장(停車場)이 설치될터이라는데명년봄에는 산간지 춘천(春川)에도 철마의우렁찬소리를 듯게되엿는바 일반은 환희리에 그날을 기다리고잇다고한다

楊州公普에도 二部制를實施

【楊州】양주군 양주공립보통학교(楊州公普)는 재학생이 오백여명을 포용한 군내유일의 학교로 금춘사월에 입학할모집인원 팔십명의지원자 백팔십명 약삼배나됨으로 신학기부터 이부제(二部制)를실시하게되엿다한다

富川各校卒業式

【素砂】부천군(富川郡)내 각초등학교 졸업식일은 다음과갓다

素砂公立普通學校 素砂公普 富平公普 素砂簡易小學 三月十九日 西串公普 南洞公普 同月二十二日 大阜公普 德積公普 龍遊公普 同月二十三日 ○○公普 桂陽公普 同月二十四日 靈興公普 北島公普 同月二十五日

春川郡農會總會

【春川】오는이십오일오전에시부터 춘천군농회(春川郡農會)총회가잇슬터인데 이에관하야 면작(綿作)모대(苗代)비료(肥料)등장작우량자급 부락에는 표창이잇슬터이라고한다

山間地江原道에도 興行業界는殷盛
演劇과映畵等으로

【春川】초비상시국이라하야 물심양면에 비상한 긴장을하고잇는이때 흥행계(興行界)만은 시국의 진전도 몰으는드시호황을 계속하야 산간지강원도에는 상설관(常設館)잇는지방이몃곳밧게없는 빈약한 현편 이나 각종 흥행은 방방곡곡에 전파되여 년년증가되는 일방이어서 작년일년동안에 흥행편재이 삼십삼만사천오백팔십오명으로 전년보다 만여명의 증가를보게되엿스며 흥행의수확은 삼십오만원의 거익에달하게되엿스니 가히 그취세를엿볼수잇고 그상황을상세히조사하여보면 다음과갓다

演劇興行
前年度 八一、五七三人 一五、五三七圓
今年度 一三五、五八六人 三四、一二四圓

活動寫眞興行
前年度 七八、三一八人 一五、六三五圓
今年度 一五〇、七九一人 二六、四五四圓

其他
前年度 七六、〇七一人 一三、一二五圓
今年度 四八、二〇八人 一〇、二七四圓

計
前年度 二三五、九六二人 四四、二九七圓
今年度 三三四、五八五人 七三、七〇三圓

大田府會
廿三日부터開幕

【大田】제십삼회 대전부회는오는 이십삼일 오후한시부터 삼일간대전부회의실에서 개최할터인데 일반경제예산액이십수만이 된바 이것이 끗나면교육부회를 이일간개최할터이라는바 의안은다음과갓다

第一號 昭和十三年度大田府一般經濟歲入出豫算決定의件
第二號 大田府公會堂使用條例設定의件
第三號 大田府土地坪數割을 賦課할工事의路線施地域及賦課總額決定의件
第六號 昭和十三年度大田府特別經濟歲入出豫算決定의件
第七號 大田府歲入出豫算設定의件

春川至急電話接受

【春川】춘천은경춘철도의 실현과 도청소재등으로 통신량이 증가하여 춘천우편국(春川郵便局)에서는이달이십일부터 이십팔일까지일주일간 전화지급개통신청(電話至急開通申請)을 접수하게되엿다는데 신청자는일시 유신원을 가납하고 인가되면 잔액일백 사십원과등기료(登記料)십원을 납부하여야 된다고한다

激增하는自殺者
原因은生活難과家庭不和
江原道서一年에百十三名

【春川】자기명에죽어도 섧다고 하거든 하물며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손으로끈는 세파에 시달린 가엽슨 인간들은 해를거듭할수록 늘어가는 경향이 잇다 사회의 이면상을 이사실을 통하야 가히 엿볼수잇스며 그와 가튼 비참한 참극을 비저내는 원인이 나변에 잇는지를 탐구하여볼필요를 느끼게된다 강원도내에 재작년일년동안의 통계면에 나타난 숫자는 생활난(生活困難)과 가정불화(家庭不和)로 인한 자살자가 수위를 점령하고 잇스니 가히 그 추세를 알수잇스며 일년동안에 자살(自殺)한수가 남자 일백구명 여자 일백사명으로 합계 이백십삼명인데 상세한것을보면 다음과갓다

自殺原因
▲精神錯亂三八 ▲病氣 四一 ▲生活困難四〇 ▲厭世八 ▲家庭不和 四一 ▲犯罪一三 ▲悔恨八 ▲失戀七 ▲其他三 ▲不詳四 ▲計二一三

自殺方法
▲縊死一二一 ▲入水三五 ▲刃物一 ▲藥物又는劇草 四四 ▲轢死六 ▲墜死二 ▲計二一三

楊州各普校도 學級增設確定

【楊州】양주군내 십삼년도초등학교 학급증설은 전부휴학급이로 그중 동두천(東豆川) 마석(磨石) 두공립보통학교가 종래 사학년까지의학교가 륙학년이신년도에서실되고 양주(楊州)장흥(長興)두보통학교가각일학급식증설된다

各學校合格者

開城商業

金炯鎭 孫洪皐 尹錫東 金在煥 安聖逸 金天浩 朴鍾範 成啓炯 李熙常 金嶽斗 金在璜 李鍾學 元衡洙 李夏鈴 申世熙 李伯林 朴淳天 林東錫 曹成龍 朴致鎬 李信在 朴永秀 鄭恩燮 韓根植 韋東鎬 朴順洪 李承中 金東浩 王顯玉 白潤國 金元浩 朴浩鎭 金鍾鎬 張熙載 劉宗鎬 嚴厚鎭 洪完杓 白賢鉉 李漢榮 全興鉉 李動九 金泰鎭 李大榮 李允求 金東植 黃泳周 金東玉 吳本根 金基鎬 崔鍾鎬 金基俊 馬祥亨 孫洪鎬 張錫鎬 朴孝國 金在植 高慶根 鄭五鉉 李仁洙 金文鈞

春川高普

崔鍾行 李俊揆 愼鎬元 林完基 崔根昌 孔憲培 方仁煥 具敎鎭 河台煥 林鍾寶 嚴相燮 李永培 崔吉燮 王相鎬 洪昌杓 李泰梧 玄明浩 金國來 林光洙 韓在灝 韓永春 韓京鎬 楊元秀 金炳成 徐駿 宋祥鳳 方雲煥 金興泳 湯于鳳 朴淳玉 崔泳銑 李潤觀 李斯鎬 許金鎬 林太錫 方圭培 金英洙 鄭昌命 鄭昇洙 李炳錫 李熙南 朴鍾鎬 洪淳泰 李起鎬 任奭宰 朴泳漢 嚴錫鎬 林寶燮 李弘林 宋大用 張漢守 高倉元 金世澗 李相璋 黃龍鳳 金寶鉉 李相哲 金東秦 金東昨 洪鍾翼 柳濟忠 金基正 金載友 鄭鳳俊 張景國 金鍾國 成必寬 高光宰 金東演 崔榮哲 南宮豪 金鍾楷 柳用均 張泳寶 金晨洙 金鍾勳

補欠試驗合格者

崔鍾煥 咸秉文 沈相鎭 金瑞榮 安宅熙 林秉植 閔居植 朴洪銘 崔錫旭 金濟亨 沈奎鐵 崔龍和 李欄 白時吉 崔鎬鎬 金商基 沈在慶 崔南奎 李炳大 洪俊杓 柳寅錫 李龍翊 元善良 李海鎭 全在鎭 吳周泳 崔明煥 尹鍾燮 成鍾昌 李光勳 金裕培 李成蘇 張基萱 金龍善 金龍錫 申昌秀 李麟柱 柳麟浩 朴明鎬 李宇鎬 金南鎭 陳圭祥 高濟勳 任成鎬 李彤浩 李近永 崔運植 朴昌鎬 申東秀 李乙相 沈昌鎬 白淳浩 朴仁寬 柳鍾民 金均河 方鴻基 高麗鵬 任昶宰 李在德 朴鎭鎬 柳鳳九 文肅烈 梁鍾植 鄭鳳和 李世淳 金昶國 鄭基鎬 洪秉燮 柳時福 金正煥 金寶泳 朴永春

長篇小說 林巨正 【70】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冊八)

어느날밤에 군수가 도 술을얻자고 룡천으로 청하는데 바람뿅은 곤하다고 초저녁부터 수청기생을 다리고 자기의 침소인 적은방에 건너가서 일직자고 류도사만 혼자와서 술대접을 바덧다 군수가 술을 여남은잔 대작한뒤부터 년해하품을하더니 마침내 안저박이지 못하고 술상여페 두러누어 코를골아서 류도사는 기생들만다리고 술을 먹다가 나종에 술한병 팔은안주 한두접시 기생들에게 들려가지고 자기 사처방으로 나려와서 한병술을 마저들내뒤에 기생들과 그대로 가치잣다

이튼날 류도사와 바람뿅이 몽산서 떠나는데 류도사가 군수의 말을 빌어타게되엿까닭에 바람뿅 라고온 말은 밧부담우에 하인의 걸머젓든 짐들을 주어언저서 아주 복마(卜馬)를 만들엇다 군수가 마부까지 주며 다리고가서 말을 주어보내라고 하는것을 류도사가 하인하나를 서울집에 올려보내는 순기편(順便)에 말을 돌려보낼테니 념려말라고 마부는 고만두게하얏다

몽산읍에서 삼십리 극성(棘城)을 오니 여기는 황주땅이라 황주판속들이 마중을 나와서 동대하고잇섯다 몽산통방(通房)에서 전날 방위사통(防衛私通)을 노하서 감사의사촌이 온는줄을 황주서 미리 알엇슨것이다 관속들이 말머리에 느런히서서 일제히 문안을 드린뒤에 그중의 아전하나가 류도사를 처다보며

「마침 사또 안기신때 행차합서서 재미가 업스시겟소이다」

하고 말하얏다

「너이 사또 어듸 가섯느냐」

「서울때에 행차하섯소이다」

「판관나리는 기시겟지」

「네 기십니다」

「그럼 판관나리나 잠간 만나보구 가겟다」

류도사와 바람뿅이 황주판속들을 전후로 느러세우고 읍에들어와서 판관을 만나보고 밥수없는 고리삭은 선비이라 다리고 말할사이도 못되고 국을 올리넘 권하지도 얻슴으로 점심한끼만 어더먹고 황주읍에서 삼십리 구현원(駒峴院)에와서 숙소하얏다 여기는 평안도 중회(中和)땅이니 평안감사 새로올때 신구감사(新舊監司)의 교대(交代)하는곳이다

류도사와 바람뿅은 밤중까지 이야기들하느라고 잠을 별로 안잣건만 그이튼날 첫새벽에 일어낫다 조반을 재촉하야 먹은뒤에 길들을 떠나는데 바람뿅은 하인마부 네사람을 다 다리고 평양길로 가고 류도사는 팔을 자전하고 혼자 황주길로 돌우왓다 팔은사람들 보기에는 황주근방 냥반이 먼길하는 정분조혼친구를 평안도초경까지 가치와서 작별하고 돌아가는것가텃다

류도사가 황주읍에를 왓슬때 전날 극성으로 마중나왓든 사령하나가 길꺼리에 섯다가 깜짝놀라는것을 겻눈으로 보앗지만 사령이 와서 알은체할사이업시 말을 달려 지나와서 동선역(洞仙驛)에 와서 해를 처다볼때 점심때는 아직 멀엇스나 말의배를 채워주라고 겸까집아페 말을 세우고 주인을 불러내서 상쾌으로 쌀헐테니 점심한끼해주겟느냐 물어보앗다 사람양식과 말먹이를 둘히 악가지고 두자상쾌 십여필만 겨대에 너허서 말안장뒤에 달고오끼닭이다 주인이 못든말은 대답안코

「어제 황주루 가시든 손님아니신니까」

하고 되물엇다

「그래」

「어째도루 오십니까」

「급한볼일이 잇서 올우오네」

「네 급한볼일루 올우오세요점심때가 상기 멀엇는데 어느새점심을 잡수시렵니까」

「조반을 설치구 왓서」

「음이 얼마안되는데 읍에 들어가서 잡수시지요」

「점심을 못해주겟단 말인가」

「아니요 해달라시면 해드리지요만 차이 업서뵈서」

「찬은 장거리이만해두 조쿠그려구 사람버린두 말을 잘먹여주게」

류도사가 그입에서 상쾌 서너끼를 주고 마사람이 다가리빼를 돈돈이 불린뒤에 먹으것이 자위돌들안 바게 나와서 팔을 가림하야 몰뭉이도 글거주고 갈기도 씌다듬어주고하다가 다시 치러라고 몽산읍으로 달려와다

電醫療士研究生募集
朝鮮高等電醫研究所 京城府嘉會町一九七ノ十一

公認 漢榮高等學院生徒募集 詳細問合
高等科 一年約五十名 二、三年補缺若干名 四月二十日開講
京城府三角町八九、電話本局六四八二番

誠信女學校生徒募集
本科 補習科 十二歲以上女子 普通學校六年卒業者
出願 三月末日限 試驗 四月四日
京城府堅志町七四 (電光一九六二) 詳細來問

中央佛教專門學校生徒募集
一、募集人員 第一學年約五十名 別科、研究科各若干名
二、出願期限 三月三十一日
三、試驗期日 四月五、六、七日
四、詳細要問本校 京城府明倫町 電光六五五番 書信照會(要郵券切手)

明星女學校生徒募集
女子高等科一學年約六十名 願書提出三月廿九日迄 試驗期日三月三十、三十一日
京城府齋洞町八二 (電光三七二番)

京城外國語學院豫科本科生徒募集
▲豫科(中學、實業及師範入學準備) ▲本科(中學一、二、三、四、五學年程度)
◎開學四月八日 ◎規則要三錢切手 ◆京城府校洞町二一(電光二五五)

朝鮮總督指定 文部大臣指定 儆新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期間 三月二十五日限
試驗期日 三月二十八、二十九、三十日(京城府蓮池町一)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出願 昭和十三年三月三十一日 ▲考査 昭和十三年四月一日 ▲六個月卒業 ▲規則請求要三錢切手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算、製圖、伸縮圖法、數學、滿洲語、實習
京城府蓮池町一九五 電光二七八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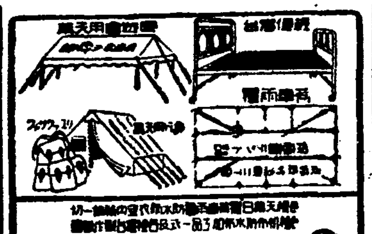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봄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슴

謝罪謹告
去十八日不意의災厄으로因하와 江湖諸位께 大端한 累를 끼치게되야 罪悚하옵기 限量업사오며 爲先紙上으로 謝罪의 意를 謹表하나이다
朝鮮絹織株式會社 白

近火謝禮
去十八日近隣의火災에際하야는 辱知僉彦의 多大하신 同情과 慰問을蒙하와 紙上으로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京城府崇仁町一八一 東光生絲株式會社 電光五〇五・九三三番

近火謝禮
去十八日近隣의火災에際하야는 辱知僉彦의 多大하신 同情과 慰問을蒙하와 紙上으로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京城府東大門外崇仁町一九九 兄弟酒店 白 電光三一〇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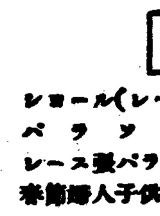
清血排毒强心特效藥 海草精
適應症 慢性傳染疾病、淋毒疾病、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膚病、咽喉病、頭痛、中風、內臟病
一瓶(一個月分)三圓九十錢
ホルモン医化学研究所



東亞商會テント部

寫眞 亞細亞 京城鍾路(酒通町入口) 電話光化門一二〇二

朝報案內
入學 京城中學校 ...
自動車 ...
めったにない 土地家屋格安賣却



全店春物大賣出
三月二十日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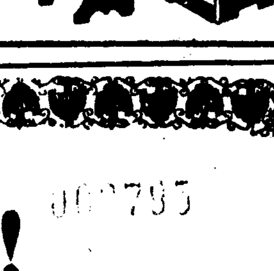
純毛春服
既製セビロ三揃 ￥23.00부터
既製春オーバ ￥23.00부터
大好評인春服豫約日이지
春節純毛高級服紗周衣大量富新入荷
每疋 ￥5.50부터 ￥11.00까지
周衣工賃 男子 ￥5.00 女子 ￥4.00

春節紳士用品
純綿ネクタイ ワイシャツ ￥1.50부터
紳士用紺本革短靴 ￥11.50부터
純綿靴下(二足組、三足組) ￥0.50부터

春節婦人用品
ショール(レース製) ￥2.00부터各種
パラソル ￥2.50부터各種
レース製パラソル ￥5.00부터各種
春節婦人子供各種具備

新學年用品
文房具各種具備 (四階)
男女兒童通學服(一年用)具備 (五階)
ランドセル(布製) ￥1.40부터 (革製) ￥3.00부터 (一階)

京城南大門通 丁子屋



山葉オルガン
兒童들도곳칠수잇는 音階速習器付 山葉オルガン 定價金四拾圓
가다로구進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電本局二四八五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을手工으로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原料商)
京城府長沙町二九 萊昌工業所

大阪總販賣所
營業所를左記住所로移轉함 大阪市旭區浦牛町二丁目九五

宿醉 ノーシン
頭痛、齒痛、神經痛에

新入學生을 두신 家庭에 告함!

今般 여러분의子女가 어려운 試驗地獄을 無難이 突破하게된것은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그러나 一便 오랫동안 試驗工夫로因하여 腦를過度히쓰고 身體가衰弱하여저서 新學期의工夫에 障害나업슬가 또한 얼마나念慮를하십니까?

아시는바와가티 어렛슬때 腦를 過度히쓰고 身體가 衰弱해지면 漸次 記憶力이 減退되고 注意力이 散漫해질뿐아니라 結局 神經이弱해지고 頭痛・胃腸病・榮養障碍等의 여러가지發育上多大한 障害를 惹起합니다。

더욱 이 時期로말하면 換節期가되여 嚴寒으로 身體의抵抗力이 減退된後이므로 여러가지 疾病을 惹起하기쉬운 念慮가잇슨즉 入學試驗準備로 身體가衰弱해진 여러분의 子女는勿論 누구나 虛弱한사람은 適當한强壯劑가 必要하오니 一次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世界的强壯劑네오톤 (NEOTONE) 은 體內에 榮養을 供給하고 肺・胃・腎・神經을 强化하는同時에 食慾을增進하고 體重을增加하여 全身의抵抗力을 强化하는 有效成分이 含有되엿스므로 病弱體・健康體를 不問하고 가장 有效한 强壯劑입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李殷相著 漢拏山 定價一、二〇 送料十九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住宅難의解決
月賦償還
月賦

大略紹介하면
一、住宅難京城의大福音
今期의 三年間五分乃至四割을가지고 家屋所有의契約이成立되는同時 住宅을契約者의所有로登記되며 月賦보다 低廉한 價格을 每月分納함으로 五年以上 十年以內에 完全한 自己所有가됨
二、合理的인構造와施設
文化住宅에서부터 新作되여야될다 住宅의構造 水道、電氣、交通의 完備는 勿論이며 特히 自動車는 各戶門前까지 머므를수잇스며 電車나리서는 五分以內에 當到할수잇슴
三、先約者의勝利
新築家屋四百戶가 既定된바 戶數이온데 벌서 半數以上의 契約이 成立되고 續續契約이 殺到中임으로 希望하시는분은 即時同願하야주시요

電話(龍山)一七〇八番

我家

京城阿峴町在所後方 孔德町 電車停留所 下車

孔德町雙龍台住宅建築事務所

經濟解說 ⑨

物價高와 그對策

一般物價指數보다 賃水準의 直接關係 物價指數를 算定할 目的보다도 大衆生活에 對한 利害關係가 보다더 直接的이란는 點에서 우리는 今後에 잇서서 小賣物價의 動向에 留意치안흐면 안된다는것은 이미 말한바와 가트나 國民大衆의 生活範圍內에서 物價變動의 様相을 如實히 反映시킬 目的에서 大衆의 生活必需品만을 對象으로 作成된 特殊한 物價指數가 잇다. 그것은 生計費指數이다. 生計費指數는 都賣 乃至小賣物價指數와는 目的을 달리하고잇슴으로 그 作成方法에도 만흔 差異가 잇다 其第一은 品目의 選定을 달리하는 點이다. 即 生計費指數에 잇서서는 都賣物價指數와 가티서 一般大衆生活에 直接關係업는 商品은 가령 그것이 產業上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드래도 除外된다. 例컨대 生絲와 가튼것이 그 適例이다. 이와反對로 小賣物價指數에도 나타나지안는 家賃, 電燈料, 交通費, 入浴料, 理髮料, 映畫觀覽料等의 諸項目을 加入시키고 잇다.

第二에는 生計費指數는 다른 物價指數와 評價方法을 달리할뿐만아니라 後者가 理論上은 何如튼 實際商品으로서는 評價를 絶對要件으로하지 안흠에 對하야 前者에 잇서서는 評價를 附치안하서는 意味가 업는것이다. 例를들면 生計費指數에 잇서서 米와 家賃과에 對하야보면 內閣統計局의 調査연 家計調査報告에 依하면 給料生活者及 勞働者의 生活費中 米와 家賃의 二品目에 對한 支出額은 全支出額의 約五割을 占하고잇다 따라서 이 二品目의 重要는 다른 數十種의 品目全部의 重要과同等의 支配力을 가지고잇스므로 다른物價指數와가티 단지 米價變動을 하나로보면 實際를 表示하지못하고 特히 家賃과가튼것은 關係가 업서지고만다.

×

以上과가티 生計費指數는 特殊한 構成內容을 가지는것이므로 都賣物價指數와 小賣物價指數와는 相當히 差異가 잇는것이나 그必要性에 잇서서는 어제새삼스럽게 說明할必要도 업슬것이다 朝鮮에잇서서의 生計費指數의 作成은 東京朝日新聞社를 비롯하야 大阪及名古屋商工會議所 內閣統計局等이 行하고잇스나 大阪及名古屋商工會議所의 것은 商工會議所所在都市에 限定하고잇고 一方內閣統計局의 것은 調査範圍는廣으나 昨年九月부터 發表되기 始한것이므로 以前의 比較가 不可能하야 十二都市를 網羅範圍로하는 東京朝日新聞社

生計費指數作成 特殊構成內容가진것

調査의 指數를 代表的으로 選擇하여도 조흘것이다 따라서 以下同社의 生計費指數作成法의 要領을 述하야 生計費의 構成內容의 說明에 代하려한다

(一) 調査品目及其評價의 決定은 大正十五年九月부터 翌年八月에 至하는 一個年間에 亘하야 內閣統計局이 行한生計調査 結果를 다시 選擇한것을 基礎로 하고 엇다 即 品目總數七十七로 이것을 各國共通의 分類에 依하야 다서 五部으로 區別하고 엇는데 各品目과 其評價의 大綱의 內容은 아래와갓다.

(가)飲食費 六六·오 三十五品目
米 三三·오 精米
麥其他 〇·大 玄良麥, 食麥, 우동
魚介類 三·四 鮮魚, 干魚, 鹽魚
內類 一·六 牛肉, 鷄肉
卵乳類 一·〇 牛乳, 鷄卵
蔬菜類 三·四 甘藷, 馬鈴薯, 大根, 小豆
乾物類 〇·五 昆布, 海苔
漬物類 一·五 豆腐, 蒟蒻, 澤庵漬
調味料 一·八 醬油, 味噌, 砂糖
酒類 四·〇一 淸酒, 麥酒
煙草 三·二五 朝日, 박도
菓子, 果物類 三·五 煎餅, 비스킷, 林檎, 빠나나
飲料 〇·五 茶, 사이다
(나)住居費 三·元 六品目
家賃 三·元 家賃
(다)光熱費 六·七 五品目
水道料 〇·五 水道料
電燈料 ... 電燈
燃料 ... 薪, 木炭, 石炭
(라)被服費 ... 十三品目
衣服類 ... 洋服, 綿布, 絹布, 모슬린
身廻品 ... 帽子, 下駄, 足袋, 靴下 十八品目
(마)文化費 九·三
保健衛生費 ... 入浴料, 理髮料, 藥價
教育費 ... 紙, 筆墨
交通費 ... 電車賃, 汽車賃
修養娛樂費 ... 新聞代, 映畫觀覽料
合計 一〇〇·〇 七十七品目

(二) 家賃은 十三都市에잇는 給料生活者及 勞働者의合計三百五十戶의 居住者에 對하야 미리 同社及 同社支局이 其賃銀을 調査하야 그月의 家賃을 一齊히 適正히 調査하고 各家賃의 平均을 算出하는것이다.

(三) 其他의 調査品目에 對하야서는 (가) 商工省의 十三都市小賣物價調査와 共通하는 五十品目은 便宜上 各商工會議所의 調査報告에 依하고 (나) 新聞, 雜誌, 電車賃, 入浴料, 理髮料等은 同社及同社支局이 調査하고 (다) 大阪朝日新聞社經濟部가 調査하는 朝日, 박도, 洋服, 帽子, 寫眞, 白粉, 玩具, 汽車賃, 新聞代 等의 十品目을 直接調査한다.

×

그리고 어生計費調査의 對象으로 되는 給料生活者及 勞働者는 收入이 一定치안흐므로 生計狀態가 不規則하기쉬운 農業者以外의 商工業者及 勞働者 以外의 生活者를 除한것이다.

以上과가튼 理由로 生計費指數는 給料生活者及勞働者만에 對하야 作成하고잇는데 가는 日本人의 生活을 超越하는 程度의 差가잇슬 家庭에 居住하는것이므로 實際問題로서는 一部有產階級을 除한 全國民의 生活에잇서서 物價騰貴를 示하는것이다 이러케 調査한 生計費指數의 動向이 最近 어떠케되여잇는가는 次回에 說明하겟다. (계속)

輸入原料制限과 本格的計畫統制
原料의配給은各工業別로配定
代用品의使用도指導

戰時體制下의 物資의 需給과 物價의 調整이라는것은 쩍장重大한問題로 總督府로서는 前부터 企劃廳當局과 緊密한 連絡을取하야 中央當局의 方針대로 特히 輸入原料의 制限에따라 그 配給에 萬全을期하려고 하는中 今春新年度부터는 追加豫算으로 物資需給調整二十八萬二千圓 物價調停關係十二萬圓을 計上하야 本格的으로 計畫統制를 强化케될터인데 物資需給의 對象이될 重要品目으로는 于先鋼鐵, 棉花, 羊毛, 綿絲, 生고무, 牛皮, 硫安, 石油(重油, 揮發油)이고그條로도 事情에 原料品目을 增加케될 터이다 그리하야 輸入制限으로今後諸業을 不得己短縮케될 工場도업지안흘터로 今後原料配給에 對하야 工業別로 配當을하고 一部는代用品의 使用을指導도하게 될것이고 또縮小로 不得已一部休業될것이 잇더래도 그方向轉換策도 指示하여 損失點도 考慮케하고잇는데 當局原料難에 逢着한 洋襪工業, 고무工業等에對하야 그原料配當數量의 指示가잇슬모양이다

滿支出荷組合結成
健全한伸展圖謀
各道別設置、要綱決定

鮮滿商工業者의 朝鮮의 貿易施設에 對하야 今後 各道와 緊密한 提携를 圖함이 必要한것이엇스므로 來五月下旬 總督府主催의 滿洲綜合見本市와 七月 滿洲輸入組合聯合會主催의 北支見本市를機會로 各道를 中心으로한 滿支出荷組合을 結成시키어 (既設類似團體가 잇는곳은 그것을 利用함) 對滿支輸出의 健全한 伸展을 圖하기로하고 그第一着手로서 本組合으로하여금 見本市參加商人의 推薦과 見本品, 即賣品의規格, 價格, 數量等의 政治的統制等을 하도록하는同時에 他面總督府에서도 右參加商人의 旅費, 見本品, 即賣品의 運賃, 關稅의 國費의補助도本組合을通하여 下付하기로되엿다 各道滿支出荷組合規約要綱은다음과갓다

一、設置의 目的及名稱, 對滿支輸出의健全한 伸展을圖하기爲하야 各道產業要衝地又는 產業課에 滿支出荷組合을 設함

二、事業 1、出荷의統制 2、規格統一檢査의勵行 3、委託出荷 出荷의斡旋, 保管, 選別包裝荷造, 4、市場의調査, 新販路의開拓 見本市의參加 5、其他

三、組織 1、本組合은 各道管內에잇는 各種產業團體와 當業者等으로써 組織함 2、本組合에는 組合長, 理事監事等을置함 3、組合長은 各道產業獎勵館長으로써 이를充當함 4、理事及監事는 總會에서組合員中에서 이를 選任함

貿易補償制實施
特殊金融機關設置에 努力
貿易協會新事業計畫

朝鮮貿易協會의 來年度事業計畫要은 如左하다

一、貿易金融의圓滑을 圖키爲하야 特殊의 金融機關을 設置할것
二、貿易補償制度를 朝鮮에도實施케하도록 努力할것
三、天津, 青島, 北京, 上海, 牡丹江, 濟南에 支部又는 出張所를 設立하는同時에 既設支部出張所의 强大를圖할것
四、命令航路의 擴充增設의 促進에努力할것
五、北支와의 鐵道連絡運賃의 制定及 直通連絡輸送의 實現을 期할것
六、滿洲及 支那에잇서서의 關稅를 硏究하고 그것을 될수잇는대로 低減시키도록 努力할것
七、集荷政策에伴하는 集荷港에의 鐵道運賃割引制의 實現을 期할것
八、北支見本市에參加
九、朝鮮總督府主催의 滿洲、北支見本市에 協力하야 其事務를擔當
十、南支南洋의 貿易關係를調查할것
十一、貿易好望品의 生產獎勵及 輸出統制에努力할것
十二、滿洲國에잇서서의 保稅制度의擴張에關하야 努力할것

總會附議事項 朝鮮貿易協會第六回定時總會는 二十六日午後二時京城商議에開催하고 一、昭和十二年度追加更正豫算承認의件 (一萬五千五百二十二圓을追加하야 六萬四十二圓의豫算으로함) 二、昭和十三年度事業計畫의件 三、昭和十三年度豫算承認의件 (豫算原案十四萬六千四百九十圓) 四、昭和十一年度決算承認의件 五、定款改正에關한件 六、評議員選擧의件 을附議하고 午後四時부터 商議第一會議室에 城大教授鈴木武雄氏의 「朝鮮의商圈으로서의 東北滿洲」라題한 講演이잇다고한다

對外貿易入超累計 六千五百五十萬圓

【東京電話同盟】三月中旬의 我國對外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七三、五五二
輸入	七七、〇五七
合計	一五〇、六〇九
入超	三、五〇五
一月以後入超累計	六五、五〇〇

貿易의資料充實
輸出入各品目別調查

總督府에서는 貿易管理의 强化가 物資需給에 深刻한 影響을미치고잇는것은勿論 生產力의擴充 國際의國策市勢維持에 適正한管理로써 對應함에는 貿易實狀의正確한資料에 依함이 必要가잇다하야 從來의 잘못하면 杜撰의 嫌疑를받는 貿易統計의 作成方法을改良하고 十三年度부터輸出入各品目에 對하야 微細에亘한 調查報告를하게되엿다 그리고貿易統計의正確化는 統制經濟의 高度化에伴하야 經濟國策의 基礎的資料로서도 其重要性이 認識되여잇다 調查充實에要하는 人件費(總督府屬三名, 稅關事務官補二十名의增加)로서 總督府가 十三年度追加豫算에要求한 八萬七千圓은 無事히大藏省의 承認을得하엿스므로 新年度부터의 貿易統計는 자못期待되여잇다고한다

燐寸同業組合結成

懸案의 燐寸工業의統制도 드듸어十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商議에서 朝鮮燐寸同業組合의 正式創立을보아 內鮮協調問題가具體化하게되엿다 即十九日은總督府로부터 西本商工課長 石井技師가 列席하고 八業者가參集하야 一、創立事務報告件 一、創立費承認의件 一、役員選擧의件 一、十三年度豫算及經費徵收의件 一、檢査規定制定의件 을各各可決하고 組合長에 朝鮮燐寸社長龜川義作氏가 就任되엿는데 日本燐寸工業組合과의 協調에對하야서도 協議를 거듭하는바가잇섯다한다

國境地帶에서 銀行券混流
鮮銀은放置할方針

鮮滿國境地帶에잇서서의 鮮銀券과 滿銀券의 混流問題는 依然未解決그대로 今日에至하고잇는데 兩紙幣의混流는 漸次濃化하여가는 傾向에잇는것은 注目되여잇다 其理由로서는 一、强制兌換이行하여잇지안는것 二、實際上取引에 何等의支障이 업는것 三、一般의 各紙幣에對한 愛着이依然解消되지안는것 等에엇다 鮮銀으로서는 이混流에對하야서는 是正의意向도업고 이대로放置하드래도 何等支障이 업다는見解를가지고잇다

生絲七百圓割

歐洲政情不安에依한 米國市場의 暴落에伴하야 生絲淸算市勢도 反落步調이더니 十九日에는 橫濱市場은三、四、五、六月限 神戶市場은 四、五、六月限이 모다 七百圓臺가 깨어저서 六百九十圓臺로 轉落되엿다

世界產金高分布

金增產을 째戰하는軍擴競爭各國의 通貨下落에伴하는 金의 價格의 騰貴는 金의增產을 顯著히 엿는데 軍擴이도되여 世界的으로 表面化한今日에 잇서서는 金의增產은 軍只價格引上에依한 自然的結果에서 한目的을가지게 되엿다

그것은말할것도업시 原料가不足한나라들이 軍擴의遂行上必要한資源財를 輸入하기爲하야는金을 現送치아니하서는 아니된다따라서 產金은軍擴遂行이란는 目的을가지게되여 產金政策의强化가 行하여지게된것이다

그러나 世界의產金力의分布狀態를보면 皮肉的으로도 各種原料가豊富한 英帝國、米國、蘇聯에偏在하야 가지지못한나라들은 자못貧弱하다

世界產金國產金量 (單位千瓩)

	一九三五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七年
英帝國	四五五·五	五〇九·七	五五三·九
南阿聯邦	三三八·三	三三五·一	三五三·六
加奈陀	八三·八	一〇三·二	一一五·七
濠洲	二八·五	二八·五	三六·一
南部로데시아	二六·五	三一·六	三四·八
골드코스트	八·一	一一·三	一三·四
印度	一〇·三	一〇·一	一〇·三
米國	九六·九	九六·四	一一五·五
蘇聯邦	一三三·九	一八一·四	二二八·五
日本	三·五	一七·八	二〇·五
世界產金額	六九六·三	九六三·七	一〇八八·六

右表에依하야 此分布를보면英帝國이 五十五萬二千瓩으로 世界의 第一位를占하고 다음에蘇聯은二十二萬八千瓩、米國은 十一萬五千瓩(?) 此等三國이 八十九萬七千瓩 即全世界生產高의 八割二分五厘를占하고잇다 日本은二萬瓩으로 世界生產高의 一分八厘八毛에不過한다

英國產金의狀態 近年世界產金高에對한 英帝國의產出比率이 多少低下의傾向에 잇는것은 右揭表에依하야 알것이나 產金國으로서의 英帝國의 地位는 確乎不拔한것으로 英帝國의對世界產金高의比率은 一九三五年에는 五割二分八厘 三六年에는 五割七厘를占하고 엿는것이다 世界產金高中에占領하는英帝國의產金高의地位가 低下하고 엿는것은 다툴수업는事實이나 어것은 英帝國以外의 諸國產金高가 如何히急速한 發展을遂하엿는자를說明하는것이다

米國어 第二位의 世界產金國이라는것은 實言을要하지 안코나 選穀의平價切下가 產業界를刺戟하고 產金業의 活況을 惹起하엿다 今年의 增產을招來한것이다 昨年度의 世界產金으로 驚異的增產을示한것은蘇聯이다 蘇聯은國營의鑛業組合에서 探鑛技術의改善과同時에 蘇聯產金業 第二次五個年計劃이 實現하엿고 一九三八年乃至 一九四二年의 第三次五個年計劃所產 產金高는三六年의 七割五分增產의 躍進을계운 程度이므로 產金熱이膨湃하고잇다 國產金調査는 實로稀微를極하야 從量擴張하야 近代的機能化의 探鑛데까지지나 英、米、蘇三國은 前述한바와가티 世界方針을 取하고잇다 產金의八割以上에當하므로 世界產金의大勢에 影響을미치지안흘 고생각되지안는다

寸鐵

○ 百萬圓수錦擁込의 建物土地會社가 단三千圓에 팔렷다니 一大驚異 朝鮮서나잇는일.
○ 엉터리會社의 標本이라할것
○ 海東銀行을 업새고 海東金融株式會社로 看板을 갈어부처더니 京紡과 合併했다니
○ 利엄는銀行業 그만두고 利남는 異名同體인 京紡과合친것은 金季洙氏의 算盤에서나온것
○ 元來부터 海東銀行은 京紡의會計課노릇하게 안엿든것이니 問題삼을것도업지……
○ 朝鮮絹織의 大火災는 두가지로 不幸한일 첫재 朝鮮人工業의하나가 灰燼되엿다는 點에서, 둘재百餘名의 失職이 만흔點에서……

株式 高價에서一息
今日의市勢(十九日)

前場續騰 昨後場意外의 暴騰로 急轉換된市勢는 今前場은 依然强調로 東新百六十七圓丁、鐘紡二百七十五圓五十錢、大新九十三圓五十錢、滿重七圓三十錢에 買人氣裡續騰하다가 休日을앞두고 高價에는 警戒되어 大引은 東新百六十五圓五十錢、鐘紡四圓七十錢、大新九十三圓三十錢、朝取九十八圓丁、朝新三十九圓四十錢이엇다 ▲後場은例休

大底入? 大轉換論有力

昨日은 意外의 市勢이엇다 賣玉整理가 完了된것이 아닐가 昨日低價를 또下卸하는市勢가 잇다고할지라도 크는絶好의 買場이될것갓다 買方의로 轉換되고 지금까지는 議會關係、統制强化만내세우고모든 强材料는全然 不顧하엿더니 이로부터는 强材料를反省하야 市勢에 나타내일것이어낫가 新規惡材料의出現이 잇기前에는 다시逆轉되지안흐리라는 觀測이有力하다

이전더强材料 再吟味할時代

自由經濟時代와달러서 統制經濟時代에移行되는中인 現在에잇서서는 財政膨脹에依한 物價高는豫想되어도 株高原動力은 疑問이라는것이 年初以來의 株式不勢의 根本原因이엇다 그러나 反面모든强材料를 全然不顧하얏섯스니 이제는이것을 다시한번再吟味할時代가온것갓다

1、議會關係는 政局動搖의一步直前에서 彌縫되고
2、國家總動員等 統制强化는 實行에잇서 最惡의環境을미리市勢에 織込한데로서 아모리統制가 强化된다할지라도 經濟界를 破滅시킬것은 아닌것
3、獨墺合併에잇서서 歐洲政情은 大戰前에彷彿하고 火藥庫에불이 붙어시작한바 어歐洲不安

市場六感

株……鐘紡二百五十圓 東新百五十圓이 엇서야만 轉換되리라고 弱氣觀이 一致되엿스나◆이번도 人氣와는 反對로 鐘紡二百六十圓臺 東新百六十圓臺이어서 市勢는 急轉回復◆議會만지나면하는 買方의 末梢指이 昨日前까지의 下落을 招한것이요 今後는 反落이겟지하는 軟派의 無理가 上市勢만은것◆市勢언제나 兩面이 잇는것 지금까지 驅의 一面만보앗스니 今後는 好의 一面을볼터◆지굿지굿이 高日步에 올러서 買玉을 支持하던 大小仕手가 할수업서 投出하고 途轉賣하니가 市勢는 益反騰 投機市場의 常事라

米……昨今市勢行動은 果然 異常한것이엇다 겟지만 同情不禁 一往一來의 浮動뿐으로 一向新味가업서 보인다 ▲人氣가떠러질수엄다는見解로 聞如間環境其他 저모든거나와 情勢가 米價高必然이란는 心理에 合致된이事實 ▲市勢는此의反對로 伸悩하는것가티도보히는一方 有力買方은軟派에게 當分間賣場所를주어 充分히 賣玉을 분하라는 策略도 잇는것갓다 ▲左右間 材料라는것은 目前 出盡되엿스니 買方도 操急히 서둘지안는關係도 잇서서市勢는 氣迷彷徨되는모양◆그러나 이제朝鮮米中心의 買上米納入期에 近接되면 在庫米減退를招致하야 强化될光然가잇스니 押目買方針을 變하지말것?

期米 極少幅의浮動

前場不變 昨後場浮動裡에 前場市況을 帶하야 今朝에 入하야 大阪初付不變인 當日市場은 五圓五十九錢을據하고 當限二丁高인 二圓六十一錢 先은 不變同價인 二圓八十九錢으로場을 始한後 大阪膠着不動인 五十五、六錢臺 往來로 人氣不振하야 氣迷되며 八十七、八錢中心의 小浮動으로 始終하다가 結局阪地止價五十四錢이나 當地는 九十錢에 止場하다 ▲後場은例休

頭重伸悩浮動

目前材料出盡으로 市勢는오직 浮動하며 再次保合圈內로陷한觀이잇다 勿論市勢自體가環境情勢에根據를둔만큼 低落될何等材料 不過하고 自然市勢도 軟化가업서서甲號五分이 五錢引弛하엿슬뿐으로 米價는前日引縮한 뒤이라買物이 傍觀되어 五分乎六分高를 示하얏다 二十錢의 反動低를 示하얏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各店別 取組數量)

正米 不透明裡區區

京城引返 不賣行商狀으로纖維深刻化하고잇스나 產地所持側이 買上待로 人氣는 意外로 强하야 市勢는 十錢의 反騰을 告하엿다 ㊀三等三三、〇〇 四等三二、八〇 一等白米三三、一〇

仁川引戾 內地入注가 依然不進이고 移出側 精米側共히

木浦續落 內地正米에朝寄하야 翻高로된關係로 入注는모두低價이고 一齊히 躊躇하야 休日二日을압두고 此邊浮動米의賣急하는것이나타나서 市勢는二十錢이賣叩되고 壞地도多少氣候的으로弱味를示하엿다 ㊉銀坊主三等三二、三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 三三、〇五

群山續落 奧地賣物二十四圓이란는 追增을示하나 依然內地入注不振이고 連日滿算漸高로 最高米價에 接近하야 政府도어떤抑制策을 講究하는것가티보이어正米界에서도 이를念慮하고稱米側도 滿腹狀態에잇서서 高價警戒로 買付치안코 去益冷却해가는 一方이라 人氣는자못不勢로 市勢는十錢의續落을 示하엿다 ㊉銀坊主三等三二、九五 四等三一、七五 一等白米三三、一五

大邱保合 最近產地는 强硬하나 賣行은 全然업는現象으로 內地間屋側도 產地高에不拘코 市價의伸力이 意外로不多함으로 一向買付치안코 場面은不賣行景氣에 活氣薄이나마 買上을압두고 低價에는 賣渡치안어 保合形勢의모양이다 ㊉穀良三等三一、九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釜山下放 奧地所持側도春暖季를 마지하야 賣急傾向도잇스나 買上을 目前에앞두엇스니만치 低價에는 賣惜하는데 今朝는 買方의高價 一齊傍觀이라는 不賣行商狀에 十錢低의 軟調를 示하엿다 ㊉穀良三等三二、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 一三、二七

月末高必至?

市勢는 當限高를가지라는統派의 實相로 現分伸張狀態를帶하엿스나 物價高의 浸潤된 現下情勢로는 米價低落 期必할수업서 恒常底意는 頑强하다 비록 一氣도上放은 不許한다고 하드래도 買上米 納入期에 近接될을 據로在米減退의 市勢가展開될것은 明若觀火의事實이다 持米側은 그招越米를 賣賜하지 안흘뿐만아니라 將來高를期待하고思惑的으로 買彌하는 傾向까지잇다하니 買上米百萬石이 朝鮮米量中心으로 政府의 非賣品이된다하면 減殺期로入하는 中間端境期情勢가 意外로速하야 品薄氣分을 深刻케할것이니 月末月初에亘하야 現市勢는 一層强化行進을 할것이라고 硬派는 極力賣據하는바이며 市勢가此邊에 가을 恢復치못함은 思惑側商人의實際가多少잇슴과 地方側의買偏頗으로因한 作用이잇가든데此亦買上應募側에 漸次로賣給하게되면 實際物이 一桶彭形勢이므로 月末高는 必要한것갓다고主張하는說이有力化되어가는바이다

今日財界 (十九日)

◆米 (單位十錢) ◆株 (單位十錢)

海外經濟 (十九日)

京城物價 (十九日)

▲白米 ▲肥料 ▲紙物 ▲鐵物 ▲京城煉炭 ▲砂糖 ▲海産物 ▲染料 ▲木材 ▲毛織 ▲人絹 ▲牛皮

牛皮乾皮(百斤,單位錢)	
京大皮	八〇〇
小皮	一〇〇〇
中皮	八〇〇
中皮二等	
毛本綾 (正,單位錢)	
高野文化絹	
人絹紋紗	
바이브	
세루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六三九番

期米 仁川海岸通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明治證券 社長 金貴鉉 京城 代表電話本局②四一六七 顧客本位 眞實第一

朝取短期 / 株式 /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取組 / 東京現株 /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綿糸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 京城正米 / 仁川正米 / 京城雜穀 / 仁川雜穀 / 金銀價 / 對外爲替 / 銀行券 / 京城綿絲布市況 / 大阪 滿洲商況